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2017.8.30(수) 14:00~18:00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목련홀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토론회 진행순서

14:00~14:10 개회사 정근식 통일평화연구원장

제1부 조사결과 : 북한 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변동

- 14:10~15:45
- | | |
|------|---|
| 발표 1 | 조사결과 개요, 통일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발표 2 | 북한실태 인식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발표 3 | 대남인식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
| 발표 4 | 주변국 인식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
| 발표 5 | 탈북민의 남한적응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발표 6 |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
| 발표 7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발표 8 | 사회보장 실태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제2부 패널토론 : “병진노선”의 두 얼굴

- 16:00~18:00
- | | |
|----|-------------------|
| 사회 |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
| 패널 | 고수석 (중앙일보) |
| | 안경모 (국방대학원) |
| |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
| | 임수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 | 현인애 (통일연구원) |

목 차

조사연구 개요	09
발표 1 : 조사결과 개요, 통일인식	21
조사결과 개요, 통일인식 (요약)	30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2 : 북한실태 인식	39
북한실태 인식 (요약)	49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3 : 대남인식	55
대남인식 (요약)	63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4 : 주변국 인식	71
주변국 인식 (요약)	77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발표 5 : 탈북민의 남한적응	81
탈북민의 남한적응 (요약)	91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6 :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97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요약)	108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발표 7 :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115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요약)	129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발표 8 : 사회보장 실태	135
사회보장 실태 (요약)	155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조사연구 개요

2017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병진노선”의 두 얼굴

- 조사연구 개요 -

조사방법, 표본 (단위: 명)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기간	4/15-6/4	4/6-6/2	6/13-7/16	5/28-6/30	5/22-7/6	6/10-8/8	6/8-8/6
탈북연도							
2010	104						
2011	1	127					
2012			133				
2013				149			
2014					146		
2015						135	
2016						3	132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조사방법	면대면 설문조사						

조사내용

조사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조사내용	북한 주민의식						
통일의식	○	○	○	○	○	○	○
대남의식	○	○	○	○	○	○	○
북한실태	○	○	○	○	○	○	○
남한적응	○	○	○	○	○	○	○
조사내용	북한 사회변동						
주민생활 (의식주 등)	--	○	○	○	○	○	○
정보화	--				○	○	○
사회보장	--					○	○
사적 경제활동	--	○	○	○	○	○	○
경제개혁인식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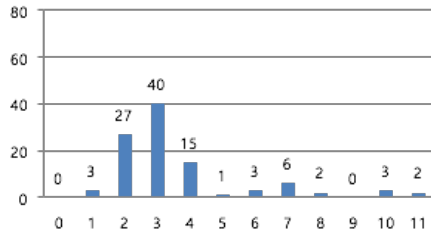
성별, 연령별 분포 (단위: 명)

연령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20대	13	19	22	21	24	22	17	31	16	29	14	38	24	23
30대	12	17	11	12	17	12	13	15	20	25	16	16	24	15
40대	6	10	10	21	11	27	12	27	13	24	15	19	16	11
50대	1	14	6	11	7	9	6	13	6	10	7	9	5	12
60대 이상	4	9	7	6	0	4	2	13	2	1	1	3	1	1
합계	36	69	56	71	59	74	50	99	57	89	53	85	7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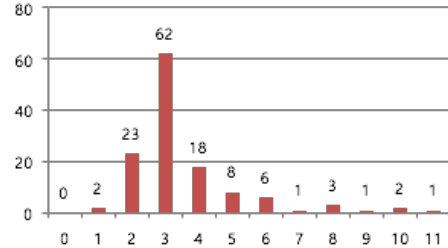
- 2014/2015 조사의 응답자 중 10대는 각각 3명, 1명이었으며, 10대는 20대에 포함됨. 2016/2017 조사에는 10대가 없었음.
- 20대 35.6%, 30대 29.5%, 40대 20.5%, 50대 12.9%, 60대 이상 1.6%로 2016년 연령대 비율과 유사함.
- 남성은 53.0% 여성은 47.0% 로 이전의 조사보다 남성 비율이 높음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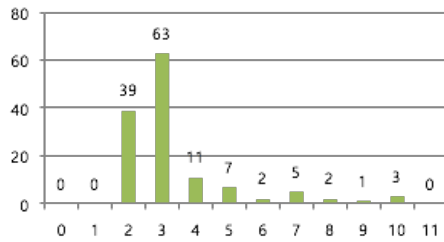
2011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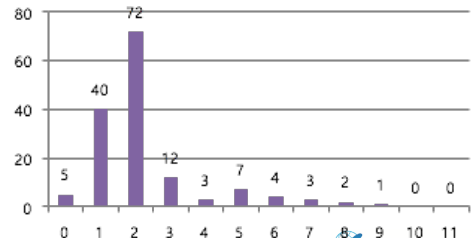
2012년 (단위:명)



2013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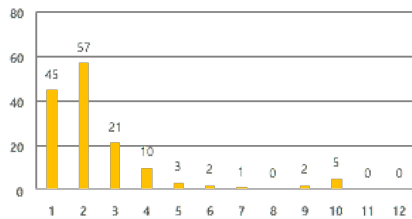
2014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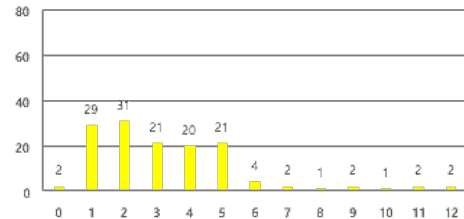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북 후 입국까지 걸린 기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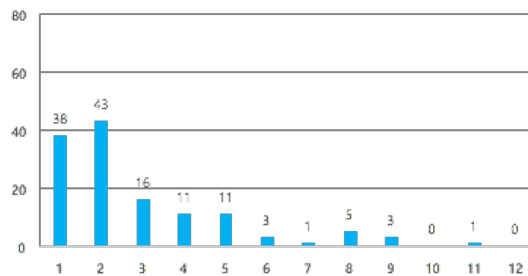
2015년 (단위:명)



2016년 (단위:명)



2017년 (단위:명)



IPUS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탈북 전 최종 거주지 (단위: 명)

북한의 출신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양	0	0	1	3	3	5	2
남포	0	1	0	2	1	2	1
개성	0	0	0	0	0	0	1
평안남도	5	0	2	4	3	2	0
평안북도	0	1	6	0	3	1	1
함경남도	4	14	11	9	5	4	6
함경북도	55	65	51	53	64	58	33
자강도	0	0	0	1	0	0	0
양강도	40	39	58	72	60	63	84
황해남도	0	3	0	1	1	0	4
황해북도	1	3	1	2	4	0	0
강원도	0	1	2	2	2	3	0
합계	105	127	132	149	146	138	132

25.0%

63.6%

교육수준_탈북 전 최종학력 수준 (단위: %)

교육수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대학교	11.4	10.4	16.5	13.6	19.9	13.0	7.6
전문학교	21.0	18.4	11.3	21.8	16.4	11.6	17.4
고등중학교	66.7	66.4	71.4	62.6	61.0	74.6	72.0
인민학교	1.0	3.2	0.0	2.0	2.1	0.7	2.3
무학	0.0	1.6	0.8	0.0	0.7	0.0	0.8
합계(빈도)	105	125	133	147	146	138	132

- 전문학교 이상 북한 학력자: **25.0%**
- 고등중학교 북한 학력자: **72.0%**

직업분포_북한에서의 직업 (단위: %)

북한에서의 직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자	29.3	37.6	31.6	31.1	26.2	22.5	43.9
농민	9.1	8.8	3.8	7.4	4.8	9.4	3.8
사무원	13.1	4.8	9.8	12.2	9.0	10.9	6.1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8.1	7.2	8.3	3.4	5.5	7.2	7.6
학생	7.1	6.4	6.0	7.4	4.8	4.3	2.3
군인	6.1	4.0	4.5	4.7	4.8	8.0	5.3
외화벌이일군	1.0	2.4	2.3	0.0	4.1	2.9	3.8
장사	11.1	11.2	13.5	4.7	20.7	12.3	9.8
주부	11.1	11.2	16.5	18.9	11.7	13.0	10.6
무직 및 기타	4.0	6.4	3.8	10.1	8.3	9.4	6.8
합계(빈도)	99	125	133	148	145	138	132

당원여부 (단위: %)

당원여부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당원	9.9	14.4	14.3	13.5	17.9	18.8	18.3
후보당원	1.0	0.0	0.0	0.7	0.7	0.0	0.8
비당원	89.1	85.6	85.7	85.8	81.4	81.2	80.9
합계(빈도)	101	125	133	147	145	138	132

공식 소득 (공식 월급) 수준 (단위: 명)

공식월급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원	27	32	69	91	80	80	62	47.0%
1000원 이하	7	10	2	13	7	7	8	
5000원 이하	37	46	49	39	52	37	54	40.9%
1만원 이하	2	4	5	2	1	4	0	
10만원 이하	6	9	0	3	4	5	2	
50만원 이하	2	5	4	0	0	3	3	
100만원 이하	1	0	2	0	1	2	2	
100만원 초과	0	0	0	1	1	0	1	
무응답	23	21	2	-	-	-	-	
합계	105	127	133	149	146	138	132	

- 공식월급을 받은 비율(1,000원 초과 5,000원 이하)이 2016년 보다 증가함.
- 공식월급이 “없었다 (0원)” 라고 응답한 비율 감소함.

비공식 소득 수준 (단위: 명)

비공식 수입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원	18	21	32	33	24	32	18 13.6%
1000원 이하	6	0	3	4	0	2	1
5000원 이하	7	2	0	2	0	1	4
1만원 이하	2	2	3	2	0	1	0
10만원 이하	18	25	9	26	9	11	11
50만원 이하	19	44	52	43	43	37	45 34.1%
100만원 이하	6	8	10	17	36	33	18 13.6%
100만원 초과	6	7	19	15	34	22	35 26.5%
무응답	23	18	2	2	-	-	-
합계	105	127	133	144	146	138	132

장사활동 경험 유무 (단위: %)

장사경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있다	71.3	69.8	74.4	69.8	76.7	68.8	69.7
없다	28.7	30.2	25.6	30.2	23.3	31.2	30.3
합계 (빈도)	101	126	133	149	146	138	132

탈북 후 북한 소식 접근성 (단위: %)

북한소식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거의 대부분 접할 수 있었다	13.7	19.7	22.6	24.8	19.3	26.1	20.5
조금씩 접할 수 있었다	56.9	59.1	57.1	57.8	55.2	50.7	56.1
거의 접할 수 없었다	29.4	21.3	20.3	17.5	25.5	23.2	23.5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5	138	132

탈북 전 남한 내 친척 유무 (단위: %)

남한친척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없다	40.2	37.8	34.6	30.9	41.8	60.9	51.5
있다	59.8	62.2	65.4	69.1	58.2	39.1	48.5
합계(빈도)	102	127	133	149	146	138	132

현재의 결혼 상태 (단위: %)

결혼상태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혼	55.6	46.0	37.6	30.9	39.3	42.0	40.5
결혼 (동거포함)	44.4	44.4	53.4	55.0	42.8	47.1	45.8
이혼	0.0	9.5	9.0	14.9	17.9	10.9	13.7
합계 (빈도)	99	126	133	149	146	138	131

현재의 자녀 수 (단위: %)

자녀 수	조사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0명	29.6	30.4	38.4	34.2	39.7	43.5	43.2
1명	35.8	34.3	32.3	27.5	35.6	33.3	36.4
2명	22.2	24.5	24.1	29.5	21.2	18.8	18.9
3명	7.4	8.8	4.5	6.7	2.1	4.3	0.8
4명	4.9	2.0	0.8	1.3	1.4	0.0	0.8
5명	0.0	0.0	0.0	0.7	0.0	0.0	0.0
합계(빈도)	81	102	133	149	146	138	132

2017 북한주민의식, 북한사회변동 조사결과 발표

2017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병진노선”의 두 얼굴

감사합니다.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1

조사결과 개요: 통일인식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주민 의식조사: 통일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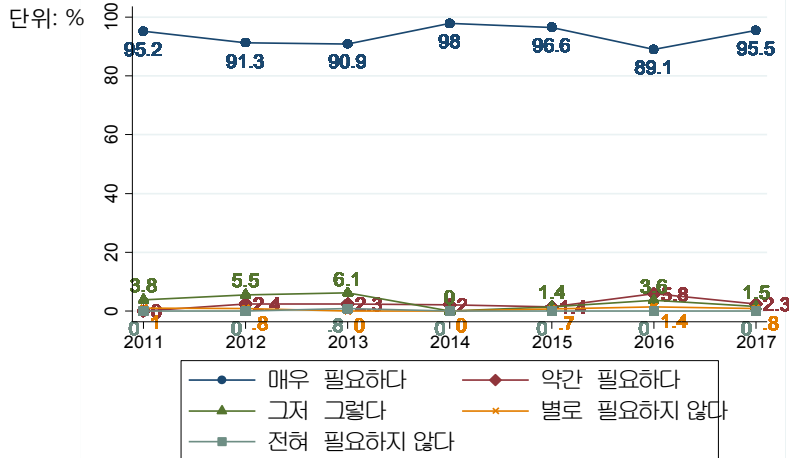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연구 질문

-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 통일의 이유
- 통일의 방식과 예상 시기
- 통일의 이익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기대감
- 통일정책의 효용성
- 통일 후 희망 거주지역

통일의 필요성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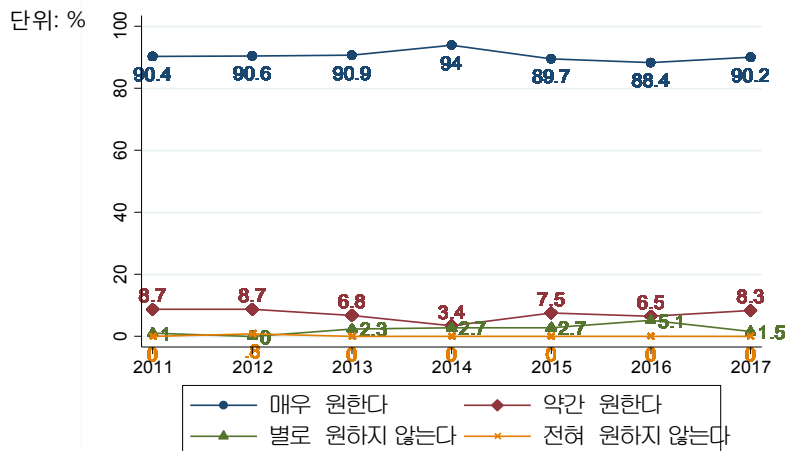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4.89	4.84	4.83	4.98	4.94	4.83	4.92

* 1: 전혀 필요하지 않다 ~ 5: 매우 필요하다

북한주민의 통일 의지

문: “귀하는 북한주민이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89	3.89	3.89	3.91	3.87	3.83	3.89

* 1: 전혀 원하지 않는다 ~ 5: 매우 원한다

통일의 이유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4	2015	2016	2017
(a) 같은 민족이니까	24.1	28.2	30.4	37.1
(b)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7.6	3.5	8.7	8.3
(c)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	11.7	8.5	12.3	9.8
(d)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6	47.9	42.0	29.5
(e) 북한의 선진국 도약	8.3	9.9	4.3	12.1
(d)+(e) 경제적/실용적 이유	55.9	57.8	46.3	41.6
합계(명)	145	142	138	132

통일의 이유 (성별 가중치 부여 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4	2015	2016	2017
(a) 같은 민족이니까	25.2	28.5	32.0	37.1
(b) 이산가족의 고통 해결	7.7	3.0	7.9	8.4
(c) 남북간 전쟁위협 해소	11.8	8.8	12.5	9.7
(d)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	47.9	47.1	40.4	29.5
(e) 북한의 선진국 도약	6.8	10.6	4.6	12.2
(d)+(e) 경제적/실용적 이유	54.8	57.7	44.9	41.7
합계(명)	145	142	138	132

$$\text{※ 가중치 계산식: } W_{\text{남(여)}} = \frac{\text{남(여)성 북한인구수}}{\text{남(여)성 표본수}} \times \frac{\text{전체 표본수}}{\text{전체 전체인구수}}$$

통일의 방식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4	2015	2016	2017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2.0	3.4	5.8	11.5
남북한의 체제 절충	21.6	17.1	14.5	15.3
남북한 두 체제 공존	4.7	6.8	8.0	9.2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39.9	48.6	42.8	38.2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31.8	24.0	29.0	26.0
합계(명)	148	146	138	131

통일의 방식 (성별 가중치 부여 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4	2015	2016	2017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	2.0	3.4	6.1	10.8
남북한의 체제 절충	23.2	16.9	14.6	15.4
남북한 두 체제 공존	3.7	6.9	8.5	9.2
남한의 현 체제로 통일	41.5	49.8	42.2	38.0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음	29.7	22.9	28.6	26.6
합계(명)	148	146	138	131

통일의 예상시기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5년 이내	20.2	11.8	11.4	18.9	11.0	13.0	6.9
(b) 5~10년 이내	30.8	29.1	22.7	18.2	30.3	31.9	19.1
(a)+(b) 10년 이내	51.0	40.9	34.1	37.1	41.3	44.9	26.0
10~20년 이내	12.5	8.7	8.3	9.5	6.9	6.5	5.3
20~30년 이내	2.9	1.6	4.5	3.4	2.1	2.2	3.8
30년 이상	6.7	5.5	8.3	4.7	6.2	2.2	9.2
불가능하다	26.9	43.3	44.7	45.3	43.4	44.2	55.7
합계(명)	104	127	132	148	145	138	131
평균값 (1: 5년 이내~6: 불가능)	3.26	3.90	4.10	3.93	3.92	3.81	4.56

통일의 예상시기 (성별 가중치 부여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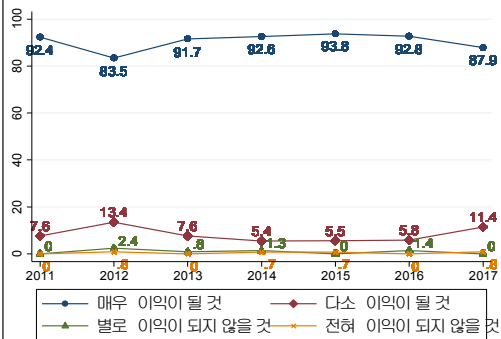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a) 5년 이내	17.0	11.6	11.4	18.7	10.7	12.8	6.8
(b) 5~10년 이내	33.2	29.2	23.0	19.1	31.2	31.6	18.9
(a)+(b) 10년 이내	50.1	40.8	34.4	37.8	41.9	44.4	25.7
10~20년 이내	12.2	8.7	8.1	10.0	6.9	6.7	5.4
20~30년 이내	3.5	1.7	4.8	3.5	2.0	1.8	3.8
30년 이상	7.1	5.7	8.7	6.4	6.9	2.1	8.8
불가능하다	27.1	43.1	44.1	42.2	42.2	45.0	56.3
합계(명)	104	127	132	148	145	138	131
평균값 (1: 5년 이내~6: 불가능)	3.32	3.90	4.09	3.86	3.90	3.84	4.58

통일의 사회적/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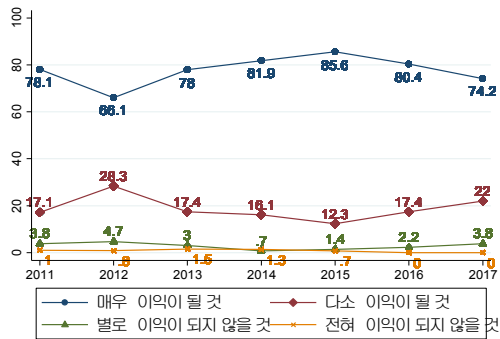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통일이 북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통일의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3.92	3.80	3.91	3.90	3.92	3.91	3.86

문: “그럼 자신에게는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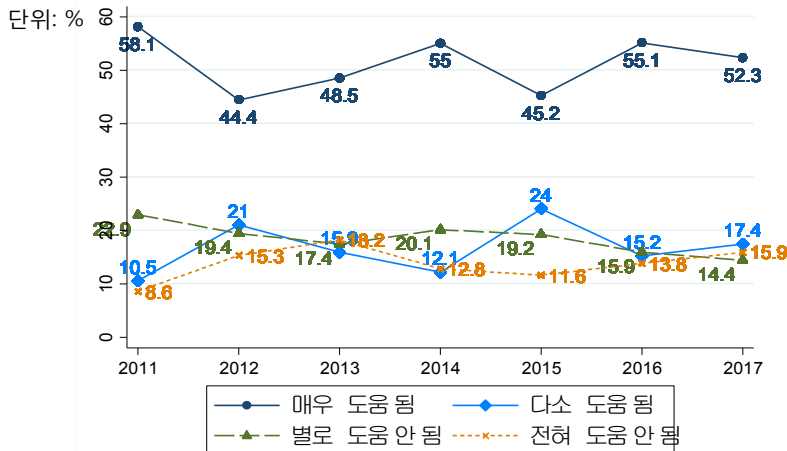
< 통일의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 >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	3.72	3.60	3.72	3.79	3.83	3.78	3.70

* 1: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 4: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대북 인도적 지원

문: “귀하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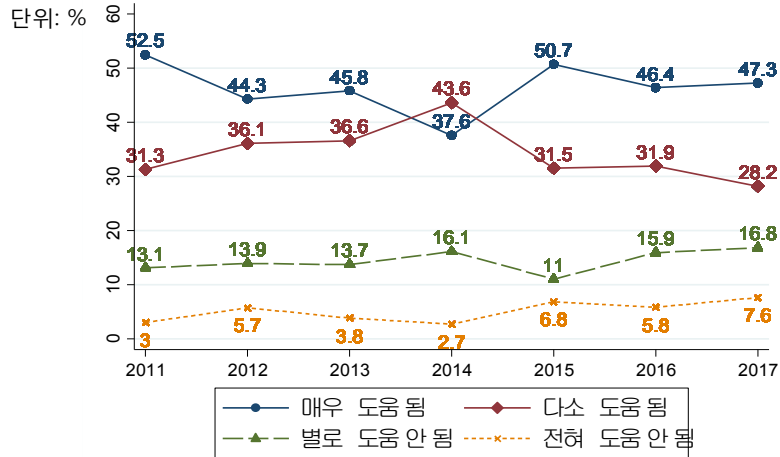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18	2.94	2.95	3.09	3.03	3.12	3.06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사회문화 교류

문: “귀하는 남북간 사회문화교류가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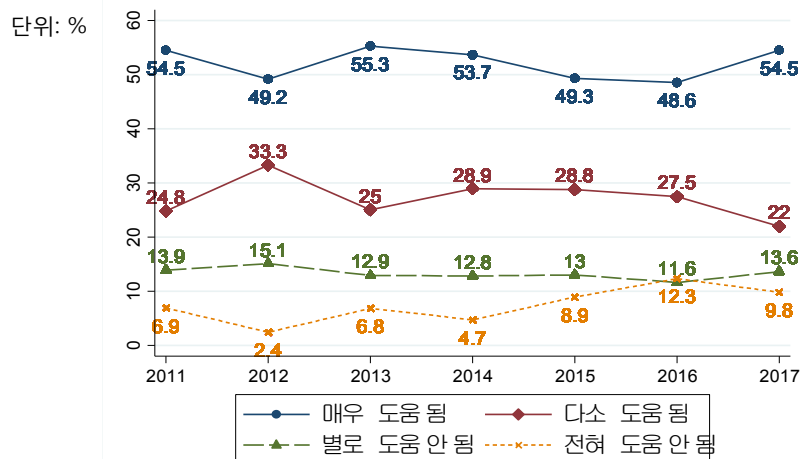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33	3.19	3.24	3.16	3.26	3.19	3.15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경제협력

문: “귀하는 남북간 경제협력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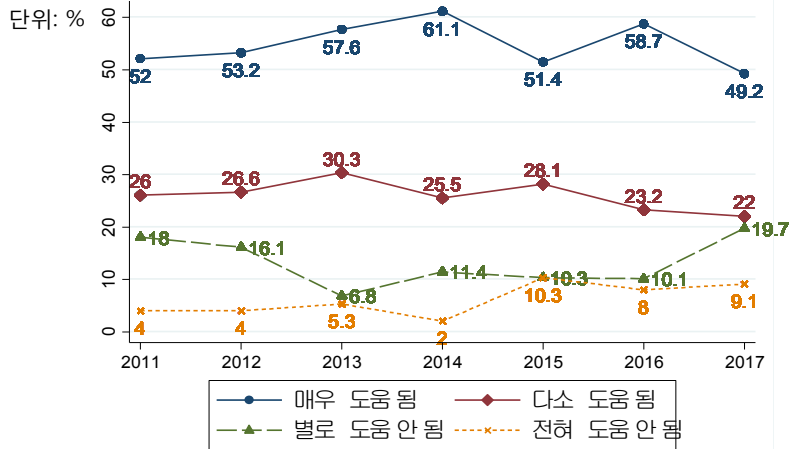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27	3.29	3.29	3.32	3.18	3.12	3.21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에 대한 효용성: 남북간 정기적 회담

문: “귀하는 남북간 정기적 회담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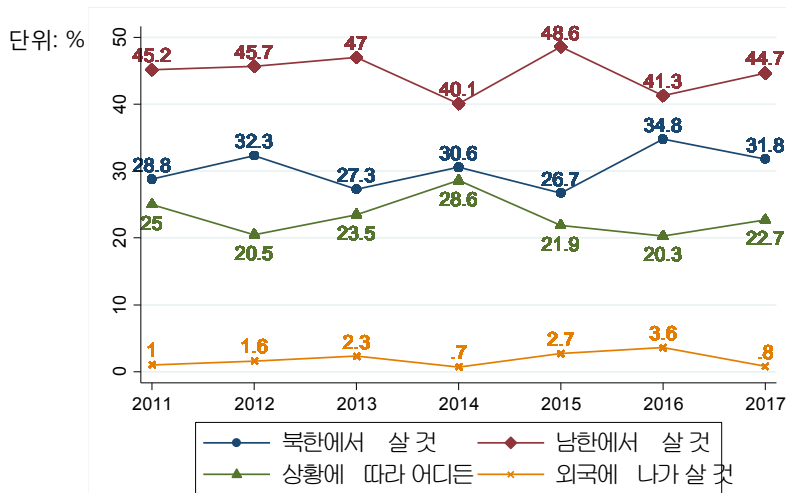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26	3.29	3.40	3.46	3.21	3.33	3.11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 4: 매우 도움이 된다

통일 후 희망 거주지역

문: “귀하는 통일이 되면 어느 지역에서 거주할 생각이십니까?”



소결

-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염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그 이유와 방식, 그리고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작년과는 다른 결과를 보임
 -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체제가 안정되고 대내외적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생각보다 높은 북한체제의 내구성과 탄력성이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물론 이같은 결과가 북한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의 경제사정이 우리보다 낫다는 인식을 의미하지는 않음
 -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개인에게 얼마나 이롭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나, 대부분은 통일이 경제적으로 자신과 사회에 유리할 것이라 인식
-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간 사회문화적 교류나 정기적 회담 등이 갖는 효용감은 낮아진 반면,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감은 증가하였음

통일인식 (요약)

정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통일의 필요성과 염원

-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의 응답자가 통일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
 - ‘매우 필요하다’(95.5%)와 ‘약간 필요하다’(2.3%)를 합치면, 97.7%의 응답자가 통일을 필요한 것으로 인식
 - 전년도에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이 다소 하락하였으나, 올해에는 다시 예년 수준을 회복하며 높은 필요성 인식을 보임.
 - 전체 평균치에서도 4.92로 작년보다 높은 수치를 보임.
 - 이는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대조되는 결과

- 필요성과 별개로 얼마나 통일을 원하는지의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 원한다고 응답
 - 90.2%의 응답자가 통일을 ‘매우 원한다’고 응답하는 등, 절대다수인 98.5%가 통일을 원한다고 응답하였음.
 - 작년까지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가 소폭이나마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으나, 올해에는 다시 반등하여 5년 전 수준의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 전체 평균치 역시 3.89로 예년의 수준을 회복함.

2. 통일의 이유

- 올해 통일인식에서 가장 두드러진 결과 중 하나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임.
 - ‘같은 민족이니까’라는 민족주의적 응답이 작년 대비 7% 가까이 늘어난 37.1%를 기록, 조사시작 이래 최고치를 보인 반면,
 - ‘북한주민이 잘 살 수 있도록’이란 경제적/실용적 응답은 역대 최저치인 29.5%를 기록하였음.
 - 이는 작년에 비해 높아진 ‘북한의 선진국 도약’(12.1%)과 합해 보더라도, 예년에 비해 매우 낮아진 수치(41.6%)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남북 간 전쟁위협 해소’란 안보적 이유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이유로 여겨지고 있음.
- 지난 4년에 걸친 조사만을 놓고 볼 때, 통일의 민족적 당위성은 강화되는 반면 실용주의적 필요성은 조금씩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이는 김정은 체제 아래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통일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보려는 경향이 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은 해야 한다는 당위가 강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3. 통일의 방식과 예상시기

-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방식에서도 예년과 다른 응답 패턴을 보임.
 - 매년 가장 저조한 응답률을 보였던 ‘북한의 현 체제로 통일을 해야 한다’하는 응답이 올해에는 11.5%로 높아졌음.
 - 반면 ‘남한 체제로의 통일’은 38.2%로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임.
 - 이는 위의 ‘통일의 이유’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북한 체제가 김정은 집권 이후 공고화되어 가면서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이 증가한 결과로 볼 수 있음.
 - 본 설문지의 질문시점이 ‘북한에 살고 계실 때’로, 아직 북한에 대한 국제적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기 이전이라는 점에서, 경제제재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이러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향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통일의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증가하였음.
- 통일이 '5년 이내' 또는 '10년 이내' 등 비교적 단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 사람은 26%에 그쳐, 작년 대비 20% 가까이 하락하였음.
- 이에 반해 통일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절반을 넘긴 55.7%를 기록
- 김정은이 여러 대내외적 악재에도 성공적으로 권력을 승계, 체제유지의 기반을 다져 가는 것을 보며, 빠른 시기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란 기대가 한 층 꺾인 것으로 볼 수 있음.
- 즉, 체제의 내구성과 정치경제적 안정화가 일관적으로 북한주민들의 통일인식에 반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통일 이익에 대한 기대감

- 통일이 되면 북한 사회에 이로울 것이라 응답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를 차지
- 총 응답자 132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두가 통일이 북한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 인식
- 하지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87.9%로 예년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고 전체 평균치 역시 3.86으로 낮아져, 통일이 무조건 이익으로만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가 조금이나마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집합적 차원에서의 이익에 대한 인식은 개인적 차원과 다를 수 있음.
- 통일이라는 큰 정치경제적 변화가 사회 전체적으로는 발전을 가져다줄지 몰라도, 개인에게도 동일한 이익의 기회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
- 이러한 예상대로, 통일이 개인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집합적 차원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통일이 개인에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74.2%로 예년에 비해서도 낮아진 것으로 조사됨.
- 평균치를 비교하여도 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3.86에 못 미치는 3.70를 기록
- 통일이라는 거대한 전환이 본인에게 무조건 이로운 방향으로만은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섞여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음.

5. 통일정책의 효용성

- 남한 정부의 대북 인도지원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예년과 비슷한 응답을 보임.
 - ‘매우 도움이 될 것’(52.3%)이다와 ‘다소 도움이 될 것’(17.4%)이라는 응답을 합해, 69.7%의 과반수가 대북지원을 긍정적으로 인식
 - 평균치 역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다만 여전히 30% 정도의 응답자가 대북지원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식, 남한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만큼 북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남북 간 사회문화 교류에 대해서는 예년에 비해 조금 효용성이 떨어진 것으로 조사됨
 - 2015년 이후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조금씩 하락하는 반면,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체 평균치(3.15)를 보아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
 - 2016년 이후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민간 차원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중단됨에 따라, 이러한 낮은 차원의 교류가 보이는 정책적 한계가 북한주민들의 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경제협력이 가져올 효용성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음.
 - 특히 경제협력이 통일에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전체의 54.5%를 차지, 조사시작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음.
 - 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응답은 작년의 12.3%에서 9.8%로 하락
 - 평균치 역시 3.21을 기록, 2014년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음.
 - 개성공단 폐쇄 등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이 사회문화 교류와는 달리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져오고 남북 교류의 원천이 봉쇄됨에 따라, 협력이 재개되어 통일에 대한 물꼬가 다시 트기를 바라는 북한주민들의 기대가 담긴 결과라 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남북 간 정기회담에 대한 인식은 조사시작 이래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남.
 - ‘매우 도움이 될 것’이란 응답이 작년에 비해 거의 10% 가까이 하락한 데 반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란 응답은 그만큼 올라가, 작년에 비해 한층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됨.

- 평균값 역시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수치(3.11)를 보임.
- 이전에도 계속되었던 여러 층위의 남북간 회담들이 특별한 결실을 보지 못한 채 남북의 국내적, 국제적 정세에 의해 중단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회담이 갖는 효용성에 대한 회의감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6. 통일 후 사회통합

- 통일 후 희망하는 거주 지역에 대한 조사에서는 북한보다는 남한에 살고 싶다는 응답이 작년에 비해 증가
 - 남한에서 살기 원한다는 응답은 44.7%로 작년 대비 3.4%가 증가한 반면, 북한에서 거주하겠다는 응답은 31.8%로 3%가 하락
 - 북한 정권 및 사회상에 대한 실망감 및 앞으로 살게 될 남한사회에 대한 기대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
 - 하지만 ‘탈북자’라는 샘플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0%가 넘는 응답자가 통일 후 북한에서 살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들이 통일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 번영이 아닌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음.

7. 소결

-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염원에 대해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절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 그 이유와 방식, 그리고 예상시기에 대해서는 작년과 다소 다른 결과를 보임.
 - 통일의 이유에 있어 실용적 경향이 약화된 반면, 민족적 경향이 강화되었고,
 - 통일의 방식에 대한 응답은 남한 체제로의 통일은 줄어든 반면, 북한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는 경향이 증가하였음.
 - 또한 통일의 예상시기에 있어서는 불가능할 것이란 응답이 절반을 넘는 등, 전반적으로 비관적 경향이 강해짐.

⇒ 김정은 권력승계 이후 체제가 안정되고 대내외적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북한주민의 통일의식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물론 그렇다고 북한주민들이 북한체제가 남한보다 우월하거나, 그들의 경제사정이 우리보다 낫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아님.

– 통일의 기대편익에 대한 응답에서 절대다수가 통일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모두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였음.

– 통일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변화가 개인에게도 얼마나 이롭게 작용할지는 또 다른 문제이기는 하나, 대부분 통일이 경제적으로 자신과 사회, 모두에 유리할 것이라 인식하였음.

○ 통일정책에 대해서는 남북 간 사회문화적 교류나 정기적 회담 등이 갖는 효용감은 낮아진 반면, 경제협력에 대한 효용감은 증가하였음.

– 과거 수차례 반복된 정기적 회담이 결국 통일로의 발전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고, 민간차원의 교류 역시 남북 간의 정세에 따라 좌우되는 것을 경험하며 이러한 정책들이 통일에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느끼는 인식이 점차 증가함.

– 하지만 경제협력의 경우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중단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경제부문에서의 협력을 재개하는 것으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는 시각이 증가하였음.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2

북한실태 인식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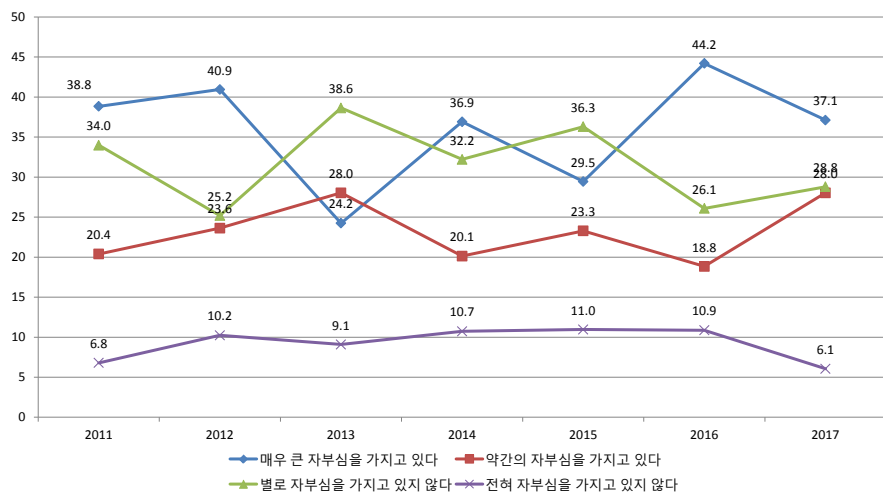
북한주민 의식 변화

- 주체사상 자부심
- 김정은 지지도
- 사회통제 유지도
- 핵무기 보유 견해
- 북한경제 평가
- 생활총화 참석
- 집단 대 개인 우선도
- 외부접촉 경로 등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있다' 63.0% → 65.1%로 2.1%p 상승

문: "귀하는 북한주민들이 주체사상에 대해 얼마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40-50대에서 자부심 평균 이상

	연령대					
	20대(47명)	30대(39명)	40대(27명)	50대(17명)	60대(1명)	70대(1명)
매우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34.0%	33.3%	51.9%	35.3%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27.7%	30.8%	18.5%	35.3%	100.0%	
별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31.9%	30.8%	22.2%	29.4%		
전혀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6.4%	5.1%	7.4%			100.0%

김정은 지지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지지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50% 이상 지지도: 58.1% → 63.0% → 63.4%

	2013	2014	2015	2016	2017
10% 미만	10.6	8.1	13.8	10.1	9.2
20%	6.8	7.4	12.4	8.0	3.8
30%	16.7	10.8	11.7	13.8	15.3
40%	4.5	8.8	3.4	5.1	8.4
50%	21.2	18.9	22.1	17.4	15.3
60%	8.3	8.8	12.4	9.4	11.5
70%	2.3	8.1	4.1	9.4	9.9
80%	15.9	10.8	7.6	10.1	9.9
90% 이상	13.6	18.2	12.4	16.7	16.8

김정은 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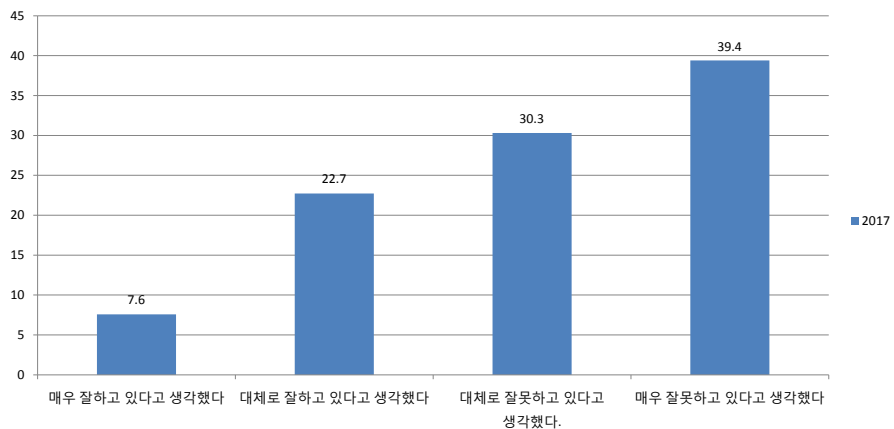
- 당원 지지도(50%이상) 58.4% < 비당원 64.0%

		당원				전체
		무응답(1명)	당원(24명)	후보당원(1명)	비당원(106명)	
김정은 지지도	무응답		4.2%			.8%
	10% 미만		4.2%		10.4%	9.1%
	20%		4.2%		3.8%	3.8%
	30%		8.3%		17.0%	15.2%
	40%		20.8%	100.0%	4.7%	8.3%
	50%		12.5%		16.0%	15.2%
	60%	100.0%	16.7%		9.4%	11.4%
	70%		12.5%		9.4%	9.8%
	80%		4.2%		11.3%	9.8%
	90% 이상		12.5%		17.9%	16.7%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김정은 직무 평가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가 수반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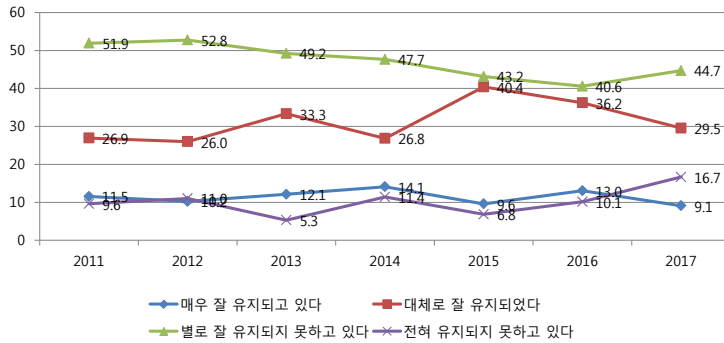
“(매우+대체로) 잘하고 있다”: 30.3% (2017년)



사회통제 유지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공안기관에 의한 사회통제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 하셨습니까?”

- 통제 속 자유 (평균점수 작년 대비 하락: 2.52 → 2.31)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2.40	2.35	2.52	2.44	2.53	2.52	2.31

1: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 4: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사회통제 유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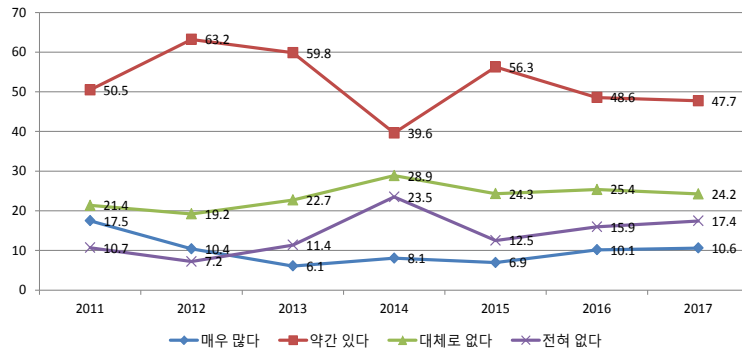
- 소득수준의 차이와 무관한 응답

	공식 소득수준 분류						
	0(62명)	천원 이하(8명)	5천원 이하(54명)	10만원 이하(2명)	50만원 이하(3명)	100만원 이하(2명)	100만원 초과(1명)
매우 잘 유지되고 있다	16.1%		3.7%				
대체로 잘 유지되었다	21.0%	25.0%	40.7%		33.3%	50.0%	
별로 잘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41.9%	62.5%	44.4%	50.0%	66.7%	50.0%	
전혀 유지되지 못하고 있다	21.0%	12.5%	11.1%	50.0%			100.0%

비판행위 정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에 지도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 행위(낙서, 삐라 등)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있다+많다) 58.7% → 58.3%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2.75	2.77	2.61	2.32	2.58	2.53	2.52

1: 전혀 없다 ~ 4: 매우 많다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 사회주의 정권이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5년 미만 **10.1% → 7.6%**, 30년 이상 **16.7% → 2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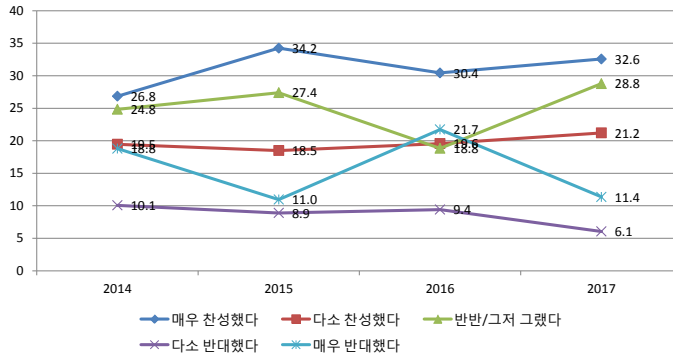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1. 5년 미만	17.5%	8.7%	11.4%	12.8%	11.0%	10.1%	7.6%
2. 5-10년	25.2%	27.0%	18.2%	23.5%	24.7%	23.9%	18.3%
3. 10-15년	15.5%	14.3%	10.6%	11.4%	13.0%	16.7%	9.2%
4. 15-20년	5.8%	4.8%	6.1%	4.7%	5.5%	5.8%	3.1%
5. 20-30년	6.8%	10.3%	3.8%	6.0%	9.6%	6.5%	9.2%
6. 30년 이상	7.8%	11.1%	18.2%	16.1%	18.5%	16.7%	28.2%
7. 생각해 본 적 없다	21.4%	23.8%	31.8%	25.5%	17.8%	20.3%	24.4%

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2.71	3.15	3.40	3.22	3.41	3.31	3.92

핵무기 보유 견해

문: "귀하는 북한에 살고 계실 때 '북한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라는 견해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찬성 50.0 → 53.8%, 반대 31.1 → 17.5%, 반반 18.8 → 28.8%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3.26	3.56	3.28	3.58

1: 매우 반대했다 ~ 5: 매우 찬성했다

핵무기 보유 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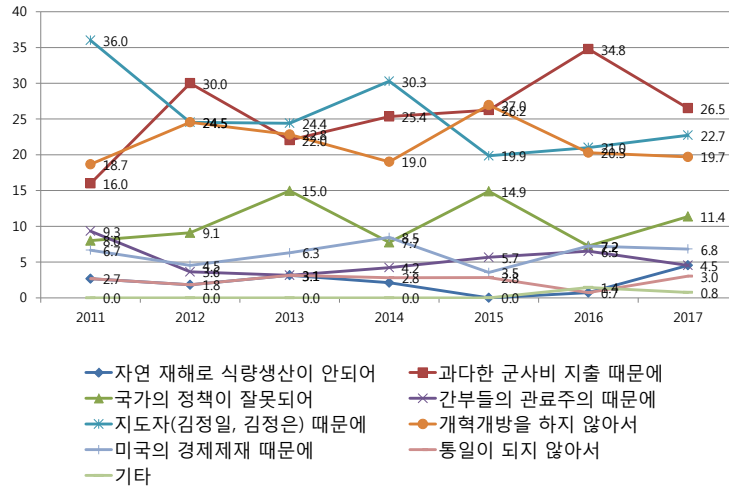
- 당원 찬성률(87.5%) > 비당원 찬성률(45.3%)

		당원				전체
		무응답(1명)	당원(24명)	후보당원(1명)	비당원(106명)	
핵무기 보유 견해	매우 찬성했다	100.0%	50.0%	100.0%	27.4%	32.6%
	다소 찬성했다		37.5%		17.9%	21.2%
	반반/그저 그랬다		4.2%		34.9%	28.8%
	다소 반대했다				7.5%	6.1%
	매우 반대했다		8.3%		12.3%	11.4%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경제 침체 원인

문: "귀하는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의 경제가 어렵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군비지출>관료주의>개혁개방 없음>정책 오류



경제 침체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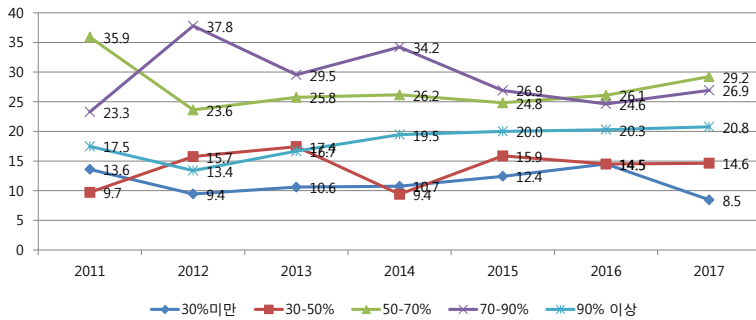
- 저소득층: 군비지출, 지도자 탓 응답 높음

		공식 소득수준 분류						
		0(62명)	천원 이하	5천원 이하 (54명)	1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 하	100만원 초 과
북한경제 어 려움의 이유	자연 재해로 식량생산이 안되어	6.5	0.0	1.9	0.0	0.0	50.0	0.0
	과다한 군사 비 지출 때 문	24.2	25.0	25.9	100.0	33.3	50.0	0.0
	국가의 정책 이 잘못되어	11.3	12.5	13.0	0.0	0.0	0.0	0.0
	관료주의의 관 료주의 때문 에	3.2	37.5	0.0	0.0	33.3	0.0	0.0
	지도자(김정 일, 김정은) 때문	22.6	12.5	24.1	0.0	33.3	0.0	100.0
	개혁개방을 하지 않아서	19.4	12.5	24.1	0.0	0.0	0.0	0.0
	미국의 경제 제재 때문	8.1	0.0	7.4	0.0	0.0	0.0	0.0
	통일이 되지 않아서	3.2	0.0	3.7	0.0	0.0	0.0	0.0
	기타	1.6	0.0	0.0	0.0	0.0	0.0	0.0

생활총화 출석률

문: "귀하가 북한에 거주할 당시 북한주민들의 주간 생활총화 출석률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 50% 출석률: **71.0% → 76.9%로 5.9%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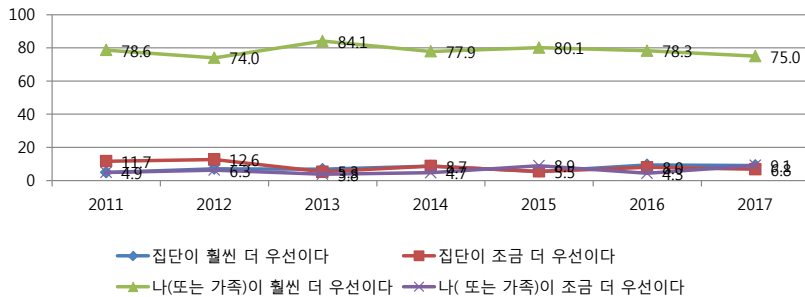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값 **3.21 3.30 3.24 3.42 3.26 3.22 3.37**

1: 30% 미만, 2: 30~50%, 3: 50~70%, 4: 70~90%, 5: 90% 이상

집단 대 개인 우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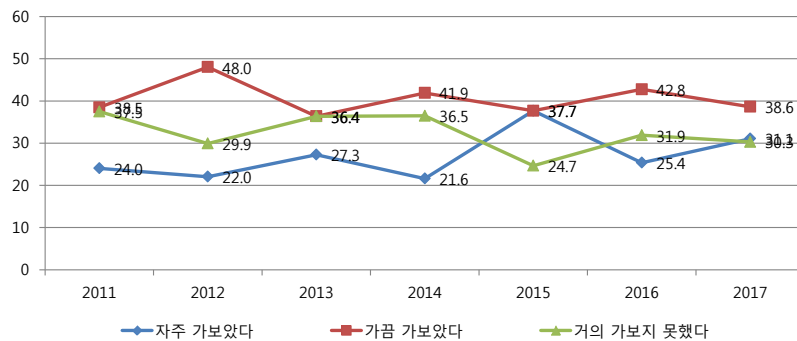
- 개인(가족) 우선 추세 지속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2.83	2.80	2.85	2.79	2.92	2.78	2.84

다른 지역 방문 경험

- (자주, 가끔) 방문 경험 증가: **68.2% → 69.7%**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평균치	1.87	1.92	1.91	1.85	2.13	1.93	2.01

1: 거의 가보지 못했다, 2: 가끔 가보았다, 3: 자주 가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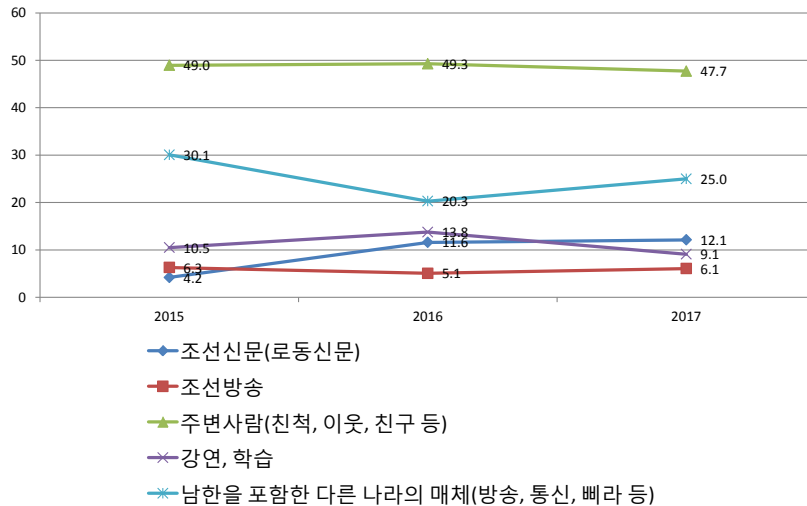
다른 지역 방문 경험

- 모든 직업에서 과반 웃돌아

			노동자	농민	사무원	전문가 (교원, 의사, 기술자 등)	학생	군인	외화벌이 일군	장사	가정부인	무직 및 기타	전체
2017	다른 지역 방문	자주 가보았다	19	2	3	2	1	4	2	3	1	4	41
		가끔 가보았다	21	1	3	5	1	2	2	6	7	3	51
		거의 가보지 못했다	18	2	2	3	1	1	1	4	6	2	40
	전체		58	5	8	10	3	7	5	13	14	9	132

외부소식 접촉 경로

- 남한 등 다른 나라의 매체 비중 증대: **20.3% → 25.0%**



결론

■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자신감 증가

- 주체사상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60%대의 지지도는 경제 회복과 핵 보유에 기반
- 핵 보유 지지가 증가하고, 정권유지가 길어질 것이란 응답도 같은 맥락
- 다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와 그 직무평가 간의 격차는 유의할 대목
- * 당원 여부와 세대 변수 등 다른 변수들과의 교차/심화분석이 필요

■ 사회통제 역시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 공안에 의한 사회적 통제는 감소한 반면, 개인별 생활총화 참석률은 증가

■ 자유화가 이전에 비해 증대

- 김정은 직무평가에 대한 낮은 지지 및 지도자에 대한 비판 증대
- 외부소식 접근 통로의 증대 및 다른 지역 방문 경험도 증가

■ 평가와 전망

- '체제유지/사회통제'와 '경제적 자유화/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공존과 긴장 => 정권의 대내외적 체제결속 조치와 주민들의 생존욕구가 결탁한 결과로서, 앞으로도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긴장과 균형이 언제까지 지속될, 자유화가 정권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계속 주목해야

북한실태 인식 (요약)

서보혁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주체사상에 대한 자부심

- (매우 큰 자부심+ 약간의 자부심을 합한) ‘자부심이 있다’가 2016년 63.0%에서 2017년 65.1%로 2.1%p 상승함.
- 특히, 40-50대에서 자부심 평균 이상의 자부심을 보였는데, 이들은 '고난의 행군' 시기 20-30대였음.

2. 주민들의 김정은 지지도

- 50% 이상의 지지도가 꾸준히 증가해 2015년 58.1%, 2016년 63.0%, 2017년 63.4%로 증가세
- 이런 여론은 이전의 자유 증대와 핵보유에 대한 긍정적 반응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
- 김정은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지지도는 경제회복과 핵능력 시위에 힘입은 것으로 판단됨.

3. 김정은 직무 평가

- 직무 평가는 “(매우, 대체로) 잘하고 있다”가 30%대로 낮아 지지도와 격차가 있음.

4. 사회통제 유지도

- 2016년 2.52%에서 2017년 2.31%로 변화했는데, 통제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자유로운 현상이 적지 않다는 의미
- 위 응답은 소득수준의 차이와 무관하게 골고루 나타남.

5. 북한정권 예상 유지기간

- 5년 미만 응답이 2016년 10.1%에서 올해 7.6%로 축소한 대신, 30년 이상 존속할 것이라는 응답에는 작년 16.7%에서 올해 28.2%로 증가
- 김정은 정권의 뚜렷한 안정화로 해석 가능함.

6. 핵무기 보유 견해

- 찬성이 50.0%(2016년)-> 53.8%(2017년), 반대31.1%-> 17.5%, 반반18.8%-> 28.8%
- 찬성이 늘고 반대가 줄어 지지 견해가 증가
- 핵보유 지지도에 있어 당원 지지율(87.5%)이 비당원의 경우(45.3%)보다 높음

7. 경제침체 원인

- 군비지출>관료주의>개혁개방 없음> 정책 오류의 순으로 나타남.
- 특히 저소득층에서 군비지출과 함께 지도자 탓에 대한 응답이 높음.

8. 결론

○ 주체사상과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60%대의 지지도는 경제 회복과 핵보유에 기반.

– 정권유지 기간이 길어질 것이라는 응답도 같은 맥락

– 다만, 김정은에 대한 지지도와 그 직무평가 차가 작지 않음을 유의할 대목임.

* 당원 여부와 세대 변수의 태도 추적이 관심사

○ 지속 측면

사회통제 일정 수준 유지, 높은 핵보유 지지도, 생활충화 참석률 증가

○ 변화 측면

– 이전의 자유와 정부 및 지도자 비판 증대, 외부소식 접근 통로의 증대 및 다변화

– 경제침체 원인에 대한 비판의식, 특히 저소득층 주민들 사이에서 지도자 책임을 높게 보는 점

○ 평가와 전망

– 통제와 자유의 공존과 긴장은 정권의 체제결속 조치와 주민들의 생존 추구욕이 결탁한 결과로서,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임.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3

대남인식

문인철 (성균관대 사회과학연구원)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문인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목차

I. 남한의 존재 인식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2. 남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인식
3. 북핵위협의식

II. 대남인지도

1.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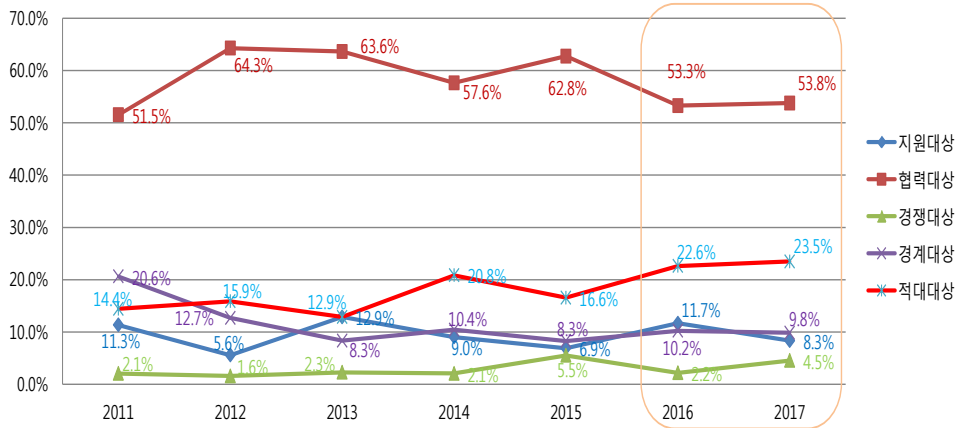
III. 남한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 인지도
2.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3.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태도
4.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5.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IV. 결론

I.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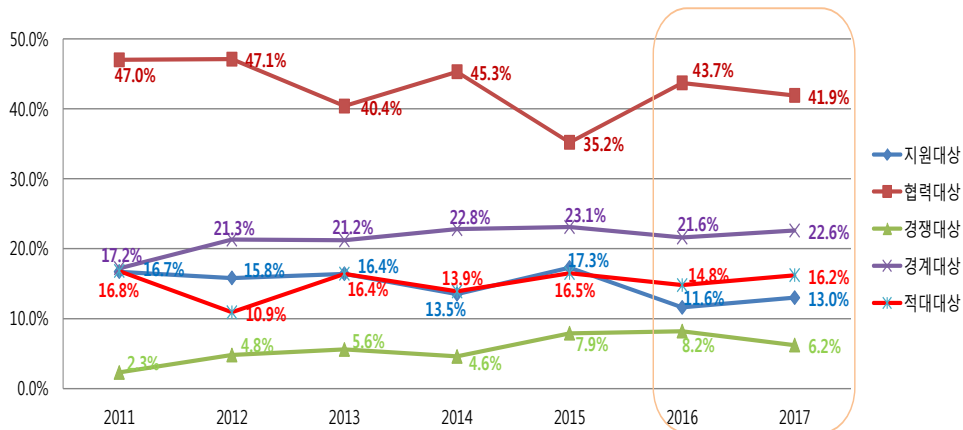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2011-2017)



-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남 비난 선전선동활동을 강화한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 한미군사훈련, 북핵외교,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드 등에 대한 비난 지속과 관련이 있다고 보임.

I.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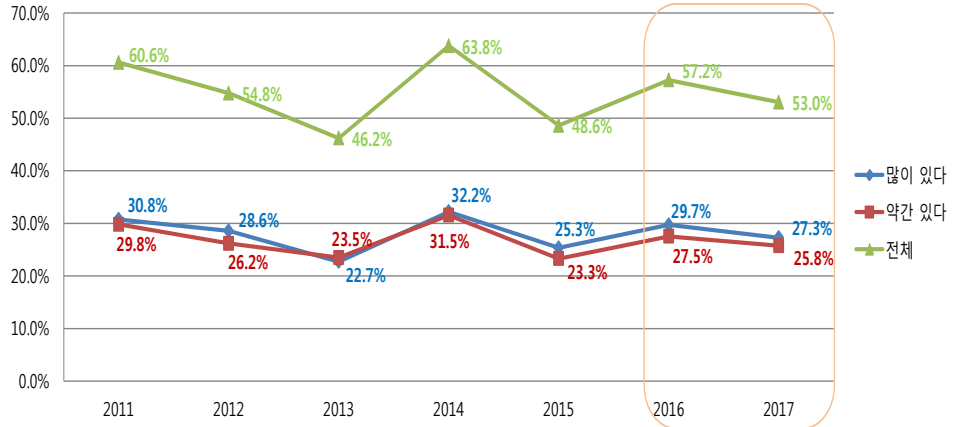
1-1. 남한주민과의 비교: 남한주민의 대북인식(2011-2017)



- 북한을 '적대대상', '경계대상'으로 보는 남한주민의 인식이 소폭 증가했음.

I. 남한의 존재 인식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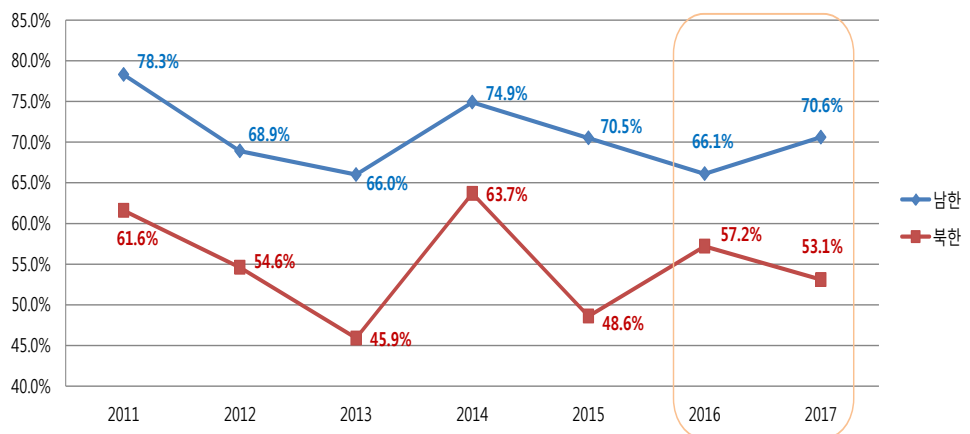


- "남한이 무력으로 북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57.2%(2016년) → 53.0%(2017년)으로 소폭 감소했음.

-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이 하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때문이라고 판단됨.

I. 남한의 존재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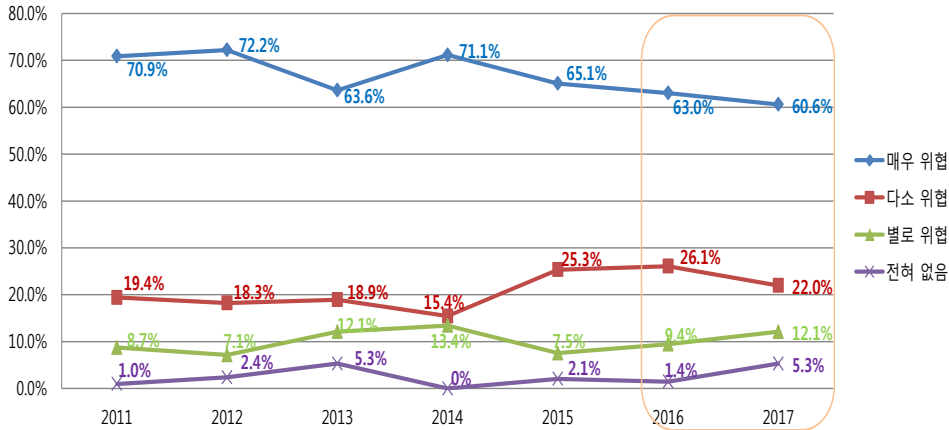
2-1. 남한주민과의 비교: 상대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2011-2017)



- 반면, "북한이 무력으로 남한을 침공할 것"이라는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66.1%(2016년) → 70.6%(2017년)으로 소폭 증가했음.

I. 남한의 존재 인식

3. 북핵위협의식(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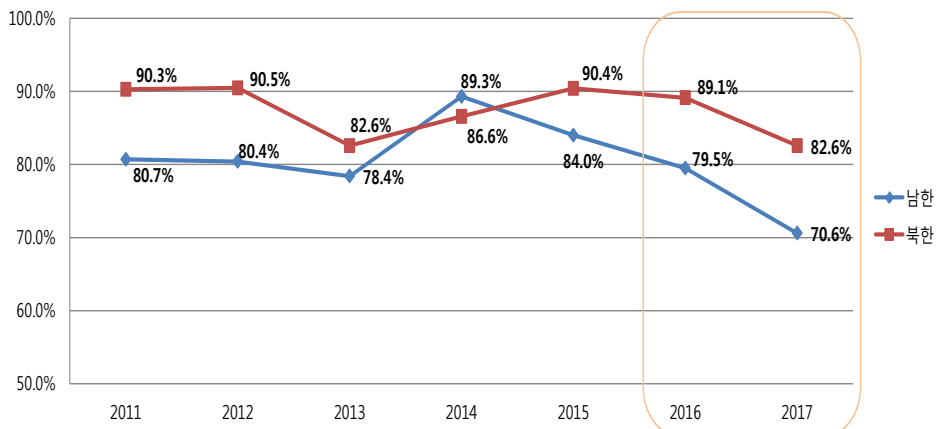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북한 당국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 및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핵무기 선제불사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로 보임.

5

I. 남한의 존재 인식

3-1. 남한주민과의 비교: 북핵위협의식(2011-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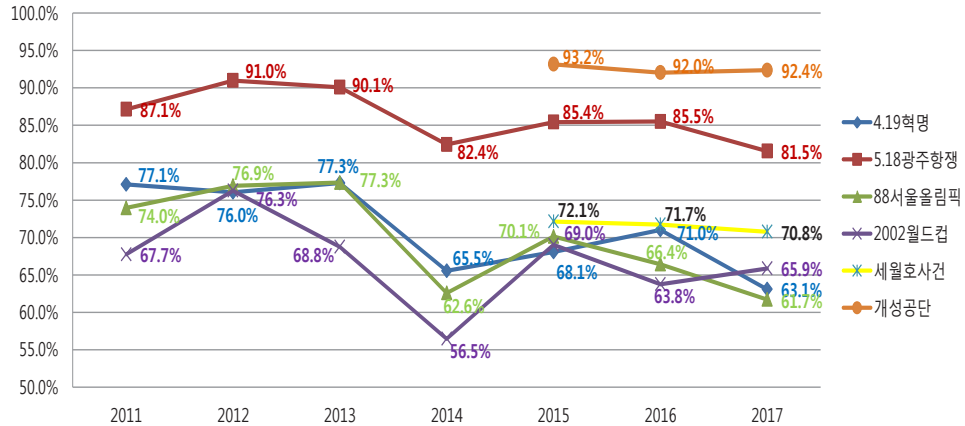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남한주민'의 인식도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더 높게 핵무기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 당국이 군사적 위기상황을 상시적으로 조장하고 있으며, 또 자위적 차원에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6

II. 대남인지도

1.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2011-2017)



- '개성공단' 92.0% → 92.4%, '2002 월드컵' 63.8% → 65.9%로 소폭 증가했음.
 - '세월호사건' 71.7% → 70.8%, '5.18광주항쟁' 85.5% → 81.5%, '4.19혁명' 71.0% → 63.1%, '88서울올림픽' 66.4% → 61.7%로 소폭 하락했음.

II. 대남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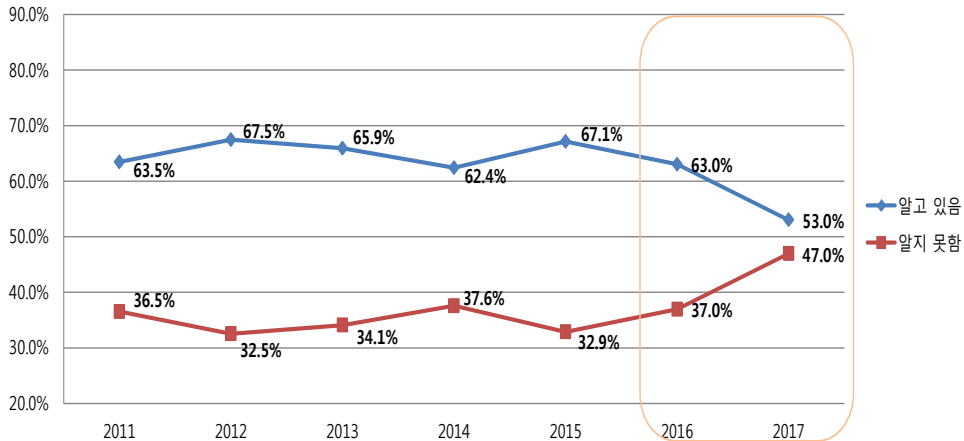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2017)

	남한	북한	격차
선거방식	91.8%(1)	97.0%(1)	5.2%p
언어사용	82.5%	90.9%	8.4%p
생활풍습	77.1%	96.2%(2)	19.1%p
가족중시	57.3%	86.4%	29.1%p
사회복지	90.5%(2)	80.3%	10.2%p
돈에 대한 중시	62.2%	81.1%	18.9%p
평균	76.9%	88.6%	11.75%p

- 북한주민들은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느끼고 있음.
 - '선거방식'에 대한 이질성(5.2%p)이 가장 작았음.
 - 반면, '가족중시'에 대한 이질성(29.1%p)이 가장 컸음.

Ⅲ. 남한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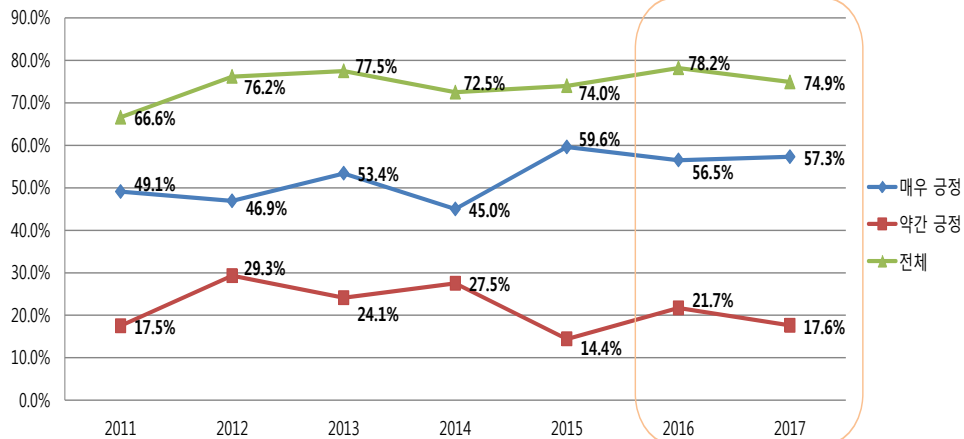
1. 대북지원 인지도(2011-2017)



- 북한주민들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대북지원이 제한적이고, 또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에 따른 결과로 보임.

Ⅲ. 남한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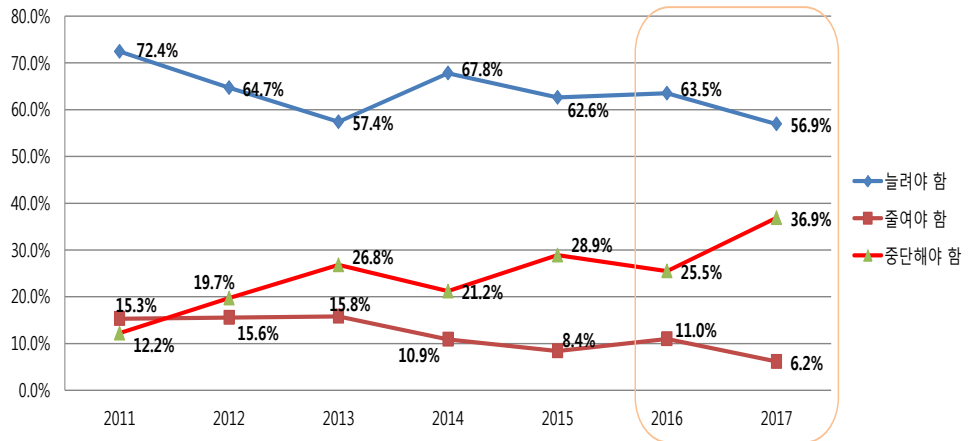
2.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2011-2017)



-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북지원 효용성은 78.2% → 74.9%로 3.3%p 소폭 감소했음.
- 그 중 '약간 긍정'에 대한 응답률은 21.7% → 17.6%로 4.1%p 소폭 감소했음.
- 하지만 '매우 긍정'에 대한 응답률은 56.5% → 57.3%로 0.8%p 소폭 증가했음.

Ⅲ. 남한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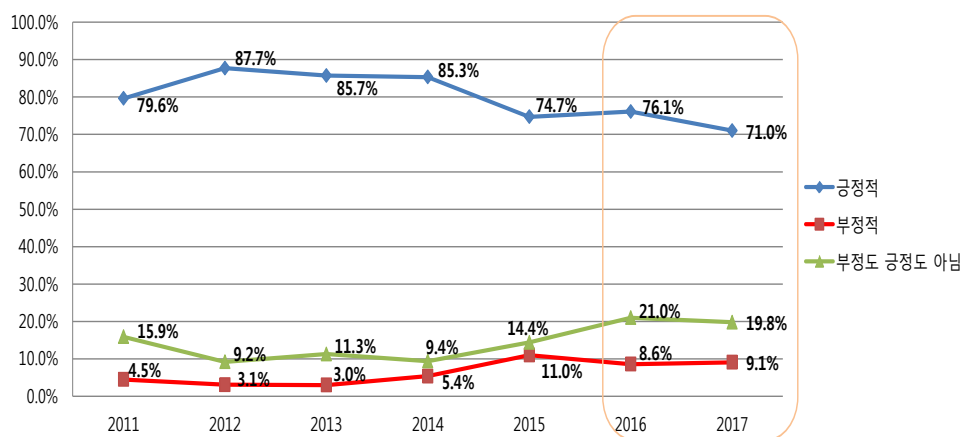
3.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태도(2011-2017)



- 남한의 대북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증가하였음.

Ⅲ. 남한의 대북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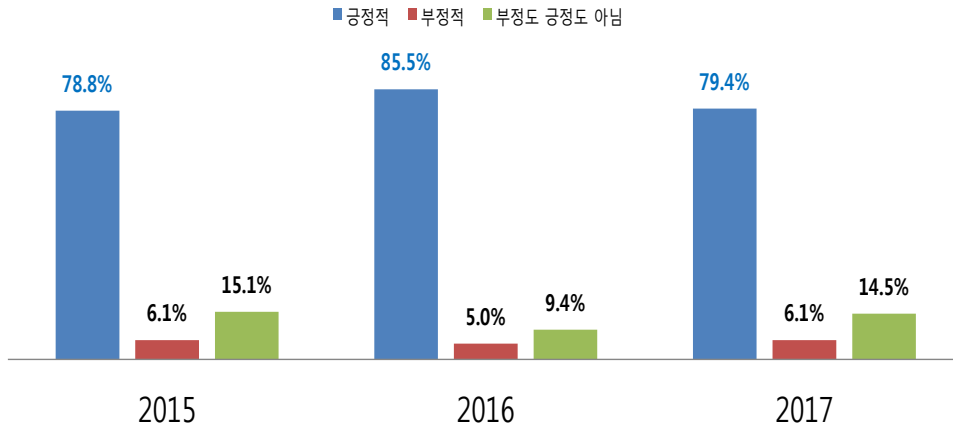
4.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2011-2017)



- 대북경제 투자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다만, 2016년 76.1%에서 2017년 71.0%로 5.1%p 소폭 감소했음.

Ⅲ. 남한의 대북지원

5.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2015-2017)



-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개성공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IV. 결론

-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하지만 대부분의 북한주민은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음.
-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의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 이는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고 보임.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해 북한주민의 인식은 낮아지고 있음.
 - * 이는 북한 당국이 핵무기 선제불사용, 한반도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 남한의 대표적 사건에 대한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고, 대체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이고 있음.
-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 하지만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

대남인식 (요약)

문인철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 남한의 존재인식

1) 북한주민의 대남인식

-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2년 5.6%에서 2013년 12.9%로 증가했고, 또 다시 2014년 20.8%를 기록했다.(2년 동안 15.2%p 증가)
- 이후 2015년에 16.6%로 4.2%p 하락했다가, 2016년 22.6%, 2017년 23.5%로 2012년 김정은 정권 등장 이후 북한주민의 대남인식이 가장 적대적으로 기록됨.
- 반면, 남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1년 이래로 50%를 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64.3%) 김정은 정권 등장 시기와 비교할 때 2017년(53.8%) 현재 많이 감소(10.5%p)한 상태임.
- 이는 지난 1년 동안 핵개발 중단 및 포기에 대한 남한 및 미국의 대북제재에 대한 비난 선전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또한 북한 당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군사훈련, 북핵외교,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지속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임.

2) 남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 반면, “남한이 북한을 무력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2016년 57.2%에서 2017년 53.0%로 4.2%p 낮아졌음.
- 반면, 남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은 2016년 66.1%에서 70.6%로 4.5%p 상승했음.
-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이 소폭 하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고 보임.

3) 북핵위협인식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5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2017년 북한주민들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에 얼마나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82.6%가 위협적이라고 대답했고, 이는 2016년 89.1%와 비교할 때 6.5%p 낮아진 것임.
- 그중 60.6%가 ‘매우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했고, 22.0%가 ‘다소 위협적이다’라고 응답했음.
- 이러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2015년 90.4%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 같은 맥락에서, 15.4%가 “북한 핵무기가 남한에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음.
- 그 중 12.1%가 ‘별로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고, 5.3%가 ‘전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했음.
- 특이할 점은 북한주민이 남한주민보다 핵무기를 더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임.
- 2014년 남한주민은 북핵 무기에 대해 89.3%가 위협적이라고 본 반면, 북한주민은 86.6%로 2.7%p가 낮았음.
-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2015년에 들어서면서 역전되기 시작했는데, 남한주민 84.0%, 북한주민 90.4%로 그 격차가 6.4%p로 벌어졌음.
- 이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었고, 2017년 현재 남한주민 70.6%, 북한주민 82.6%로 그 격차가 12%p로 벌어졌음.

- 이는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 및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며,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 핵무기를 선제불사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하지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주권침해를 주장하고, 또 그로 인한 위기상황을 주민들에게 조장하고 주장하며, 언제든지 자위적 차원에서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때문에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더 높게 핵무기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됨.

2. 대남인지도

1)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

-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 중 ‘개성공단’과 ‘세월호 사건’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고 있는 반면, ‘5.18 광주항쟁’, ‘4.19혁명’, ‘88서울올림픽’, ‘2002월드컵’에 대한 인지도는 소폭 변화를 보이고 있음.
-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92.0%(2016년) → 92.4%(2017년),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71.7%(2016년) → 70.8%(2017년)로 큰 변화가 없었음.
- ‘5.18광주항쟁’은 2016년 85.5%에서 2017년 81.5%로 4.0%p 낮아졌음.
- ‘4.19혁명’은 2016년 71.0%에서 2017년 63.1%로 7.9%p 낮아졌음.
- ‘88서울올림픽’은 2016년 66.4%에서 2017년 61.7%로 4.7%로 낮아졌음.
- 반면, ‘2002월드컵’은 2016년 63.8%에서 2017년 65.9%로 2.1%p 증가했음.
- 하지만 전반적으로 북한주민의 대남인지도에는 큰 변화가 없음.
- 다만, ‘4.19혁명’과 ‘5.18광주항쟁’은 다른 사건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북한 당국이 두 사건에 대해 ‘4.19정신’, ‘5.18정신’ 등 지속적으로 담론을 환기시키고 있고, 본 설문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고등중학교(72.0%), 전문학교(17.4%), 대학교(7.6%) 등 고학력(96%)이며, 연령대도 20대(35.6%), 30대(29.5%), 40대(20.5%), 50대(12.9%) 등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편차로 보임.
-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임.

2) 남북한 간 이질성에 대한 인식

- 북한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음.
- ‘북한주민’들은 ‘선거방식(97.0%)’, ‘언어사용(90.9%)’,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81.1%)’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 ‘남한주민’들은 ‘선거방식(91.8%)’, ‘언어사용(82.5%)’, ‘생활풍습(96.2%)’, ‘가족중시(86.4%)’, ‘사회복지(80.3%)’, ‘돈에 대한 중시(62.2%)’ 등 남북 간에 차이가 있다고 응답했음.
- 특이할 점은 남한주민(평균 76.9%)이 북한주민(평균 88.6%)보다 남북 간 이질성에 대해 다소 낮게 느끼고 있다는 것임.
- 남한주민과 북한주민이 느끼는 이질감 중 ‘가족중시(29.1%p)’가 가장 격차가 컸고, ‘선거방식(5.2%p)’이 가장 격차가 낮았음.
- 한편, 북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이질감은 ‘선거방식(97.0%)’ 가장 컸고, ‘사회복지(80.3%)’가 가장 낮았음.
- 남한주민이 느끼는 남북한 이질감은 북한주민과 마찬가지로 ‘선거방식(91.8%)’이 가장 컸고, ‘가족중시(57.3%)’가 가장 낮았음.

3. 남한의 대북지원

1) 대북지원 인지도

-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2015년 이래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대북지원에 대해 ‘알고 있다’는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67.1%(2015년) → 63.0%(2016년) → 53.0%(2017년)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같은 맥락에서, ‘알지 못한다’는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32.9%(2015년) → 37.0%(2016년) → 47.0%(2017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 이는 남북관계 단절로 인해 대북지원이 제한적이고, 또 북한 당국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임.

2)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평가

- 북한주민들이 생각하는 대북지원 효용성은 높은 수준이나, 전년 대비 하락했음.
-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식은 2016년 78.2%에서 2017년 74.9%로 3.3%p 소폭 감소했음.
- 하지만 대북지원 효용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 56.5%에서 2017년 57.3%로 0.8%p 소폭 증가했음.
- ‘약간 긍정적이다’라는 응답은 2016년 21.7%에서 2017년 17.6%로 4.1%p 감소.

3) 대북지원 규모에 대한 태도

- 남한의 대북지원 정책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였음.
- 남한의 대북지원이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인 25.9%(2016년) → 36.9%(2017년)로 11.4%p 증가했음.
- ‘늘려야 한다’는 의견은 63.5%(2016년) → 56.9%(2017년)로 6.6%p 감소했지만,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4) 대북경제 투자에 대한 인식

- 남한의 대북 경제투자에 대해 북한주민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하지만 긍정적 응답에 대한 의견이 2014년 85.3%(2014년) → 74.7%(2015년) → 76.1%(2016년) → 71.0%(2017년)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5) 개성공단에 대한 인식

- 개성공단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주민들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음.
- 개성공단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비록 85.5%(2016년) → 79.4%(2017년)로 6.1%p 소폭 감소하고, ‘부정적’ 의견도 5.0%(2016년) → 6.1%(2017년)로 1.1%p 소폭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긍정적 의견이 압도적 다수를 이루고 있음.

4. 결론

- 남한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북한주민의 인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이는 대북제재에 대한 대남 비난 선전선동 활동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와 한미군사훈련, 북핵외교,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탈북, 사드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난을 지속한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임.
- 하지만 북한주민의 대남 안보불안의식은 소폭 하락하였음.
 - 북한이 남한 및 미국의 군사적 호전성을 지속적으로 비난하고 있음에도 북한주민의 안보불안의식이 소폭 하락한 것은 북한 당국의 핵억제력 선전 때문이라고 보임.
- 북한 핵무기의 대남 위협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임.
 - 이는 북한이 책임 있는 핵보유국 및 한반도 비핵화, 핵무기 선제불사용을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로 보임.
 - 하지만 북한 당국이 자위적 차원에서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주민은 남한주민보다 더 높게 핵무기를 위협적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는 북한 당국이 군사적 위기상황을 상시로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남한의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지도는 소폭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다만, ‘4.19혁명’과 ‘5.18광주항쟁’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고 있음.
 - 북한 당국이 두 사건에 대해 ‘4.19정신’, ‘5.18정신’ 등 지속적으로 담론을 환기시키고 있고, 본 설문 응답자의 교육수준이 고학력이며, 연령대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는 것은 개인적 편차로 보임.
 - 기본적으로 60% 이상의 인지도를 보이기 때문임.
- 이전시기와 같이 여전히 북한주민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크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그중 선거방식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음.
- 북한주민의 대북지원 인지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개성공단은 폐쇄되었음에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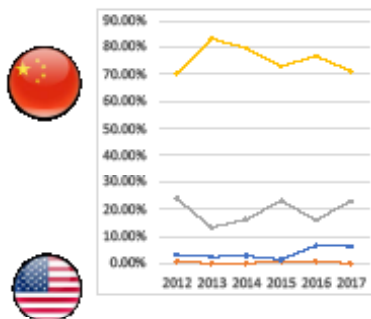
주변국 인식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부원장)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조동준

주변국 친밀감



중국과 가장 높은 친밀도(71.2%)

한국과의 친밀도(22.7%)는 2순위

미국-일본과의 친밀도(0.0%)는 최악 수준

북-중관계과의 악화가 북한 주민에게 확산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1.6%	1.5%	1.4%	2.1%	0.0%	0.0%
일본	0.8%	0.0%	0.0%	0.7%	0.7%	0.0%
한국	24.0%	13.1%	16.2%	22.9%	15.9%	22.7%
중국	70.4%	83.1%	79.7%	72.9%	76.8%	71.2%
러시아	3.2%	2.3%	2.7%	1.4%	6.5%	6.1%

주변국 친밀감 순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중국	1	1	1	1	1	1
한국	2	2	2	2	2	2
러시아	3	3	3	3	3	3
미국	4	4	4	4	4	공동 4위
일본	5	5	5	5	5	공동 4위

중국>한국>러시아 순서는 유지됨.

- 중국: 10년 동안 친밀감이 만도적으로 높은 국가. 약간 하락세
- 한국: 10년 동안 친밀감 2순위. 남북관계에 따라 변동폭이 큼.
- 일본: 10년 동안 친밀감 최하위.

주변국 친밀감-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중국	347	64.6%	272	69.2%
한국	89	16.6%	67	17.0%
러시아	28	5.2%	2	0.5%
미국	6	0.2%	3	0.8%
일본	1	0.2%	2	0.5%
결측	66	12.3%	47	12.0%
소계	537	100%	393	100%

북한 주민에게는 친밀한 국가가 중국과 한국을 제외하고는 없다는 결론!

북한 정권의 자주노선이 북한 주민의 의식에 반영된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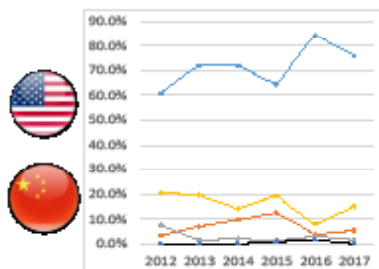
주변국 친밀감-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6	1.6%	3	0.5%
일본	2	0.5%	1	0.2%
한국	67	17.6%	89	16.2%
중국	248	65.3%	371	67.6%
러시아	16	4.2%	14	2.6%
결측	41	10.8%	71	12.9%
소계		100%		100%

성별 차이가 거의 없음.

북한 여성들이 남성에 비하여 중국에 더 호감을 가지며,
러시아에 덜 호감을 가짐 (통계적 유의미성)

평화위협국



미국이 가장 위협적이라 인식(71.2%)

중국 위협이 2순위

러시아-한국을 두려워하지 않음

남북관계가 북한 주민의 한국발 위협에 영향 없음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미국	60.6%	72.0%	71.8%	64.4%	84.1%	75.8%
일본	3.0%	6.8%	9.4%	12.3%	3.6%	5.3%
한국	7.6%	1.5%	2.0%	1.4%	2.9%	1.5%
중국	20.5%	19.7%	14.1%	19.2%	8.0%	15.2%
러시아	0.0%	0.0%	0.0%	0.7%	1.4%	0.0%
결측	8.3%	0.0%	2.7%	2.1%	0.0%	2.3%

평화 위협국-연령대

	20-30대		40대 이상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343	63.9%	249	63.5%
일본	30	5.6%	27	6.9%
한국	14	2.6%	9	2.3%
중국	76	14.3%	57	14.5%
러시아	3	0.6%	0	0.0%
결측	71	13.2%	50	12.8%
소계	537	100%	392	100%

북한 주민의 위협 인식은 연령대별 차이가 없음.

평화 위협국-성별

	남성		여성	
	빈도	백분율	빈도	백분율
미국	238	62.6%	354	64.5%
일본	24	6.3%	33	6.0%
한국	7	1.8%	16	2.9%
중국	67	17.6%	66	12.0%
러시아	1	0.3%	2	0.4%
결측	43	11.3%	78	14.2%
소계	380	100%	549	100%

북한 남성들이 중국만 위협을 여성보다 높게 평가함.

북한 여성들이 한국만 위협을 남성보다 높게 평가함.

통일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

		2014	2015	2016	2017
중국	빈도	76	68	60	52
	백분율	52.8%	48.6%	43.8%	39.4%
미국	빈도	30	24	17	19
	백분율	20.8%	17.1%	12.4%	14.4%
러시아	빈도	5	8	16	11
	백분율	3.5%	5.7%	11.7%	8.3%
우리힘	빈도	33	40	44	50
	백분율	22.9%	28.6%	32.1%	37.9%
소계		144	140	137	132

북한의 자신감이 주민에게 투영됨!

발전을 위한 협조가 필요한 국가?

		2016	2017
미국	빈도	6	8
	백분율	4.3%	6.1%
일본	빈도	1	2
	백분율	0.7%	1.5%
한국	빈도	60	74
	백분율	43.5%	56.1%
중국	빈도	65	45
	백분율	47.1%	34.1%
러시아	빈도	6	3
	백분율	4.3%	2.3%
소계		138	132

소결

- 중국과의 친밀감이 약간 낮아지나, 여전히 강함. 한국과의 친밀감이 북핵지원 사건 후 약간 상승. 러시아, 일본, 미국에 대한 거리감이 매우 강함.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잠재적 불안 유발자로 인식함. 한국발 위협에 대해서는 매우 낙관적 평가. 심지어 남북관계가 악화될 해에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 증가.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핵무장의 영향이라고 추정됨.
-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북한 주민의 주변국 인식 (요약)

조동준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주변국 친밀감

- 2017년 조사결과 북한 주민은 중국을 가장 친밀하게 인식함. 중국과의 친밀감은 소폭 하락함 (76.8% → 71.2%)
- 한국과의 친밀감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상승함. (15.9% → 22.7%) 2015년 한국과의 친밀도 낮았는데, 이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을 반영한다고 추정됨.
- 미국, 일본, 러시아와의 친밀감이 거의 없음.
- 주변국과의 친밀감에서 연령과 성별 차이가 없음.

2. 평화 위협

-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불안유발자로 인식함. 전년보다 위협인식이 하락함. (84.1% → 75.8%) 2016년 조사결과 미국발 위협인식이 매우 높았는데, 이는 2015년 목함지뢰 사건의 영향으로 추정됨.
- 중국발 위협이 2순위임. 전년에 비하여 증가함 (8.0% → 15.2%).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중 갈등이 북한 정권의 위협인식으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 북한 주민에게까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됨.

- 한국발 위협을 매우 낮게 평가함. 심지어 남북관계가 악화된 해에도 한국발 위협에 대한 인식은 변화가 없음.

3. 북한의 자신감

- 통일과정에서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 증가. 북한 정권의 자신감이 주민들에게 투영된 듯. 핵무장의 영향이라고 추정됨.
- 한국에 대한 이중적 인식이 확산되는 듯함. 즉, 한국에 대한 친밀감이 약하지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로 인식함.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5

탈북민의 남한적응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2017 북한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 “병진노선”의 두 얼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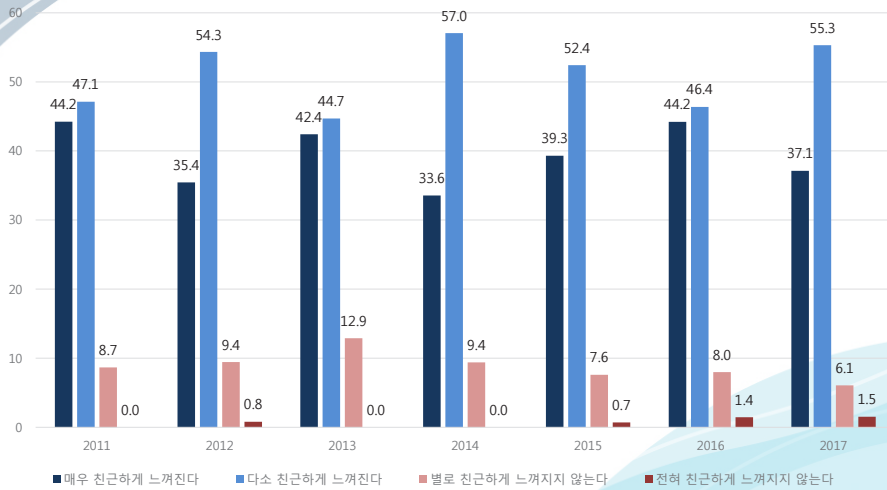
북한 이탈주민의 남한적응실태

천경효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적응실태 질문지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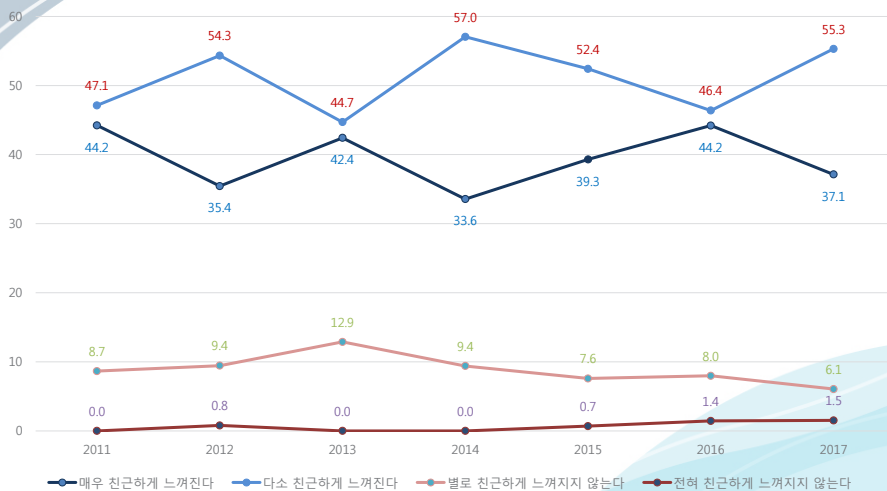
- 40. 귀하는 남한에 오신 후, 남한 주민들이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 41. 귀하는 남한에 살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얼마나 포용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2. 귀하는 남한에서 살게 된 이후 자신이 북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43. 귀하는 현재 남한에서의 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4.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문화적 차이,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사회적 편견, 심리적 외로움)
- 45. 귀하는 현재 남한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46.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정부지원정책, 민간단체지원, 종교단체지원, 기존탈북자도움,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
- 47.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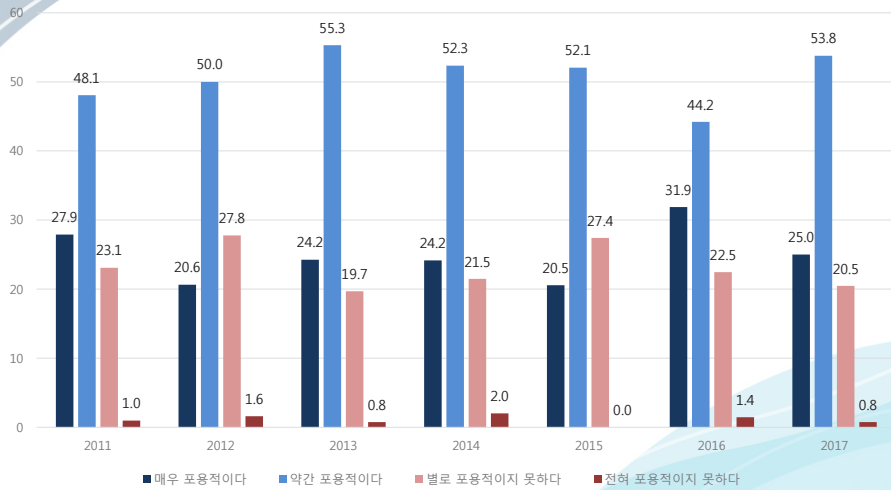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에 대한 친근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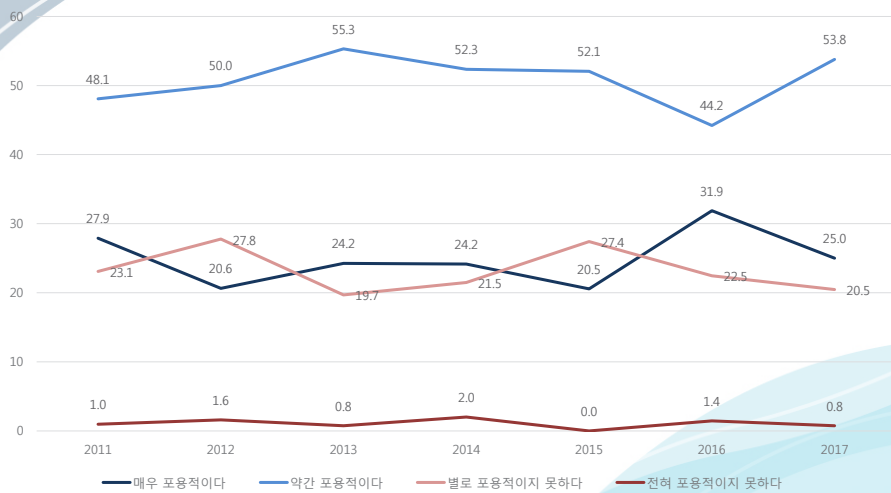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의 포용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의 포용성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6)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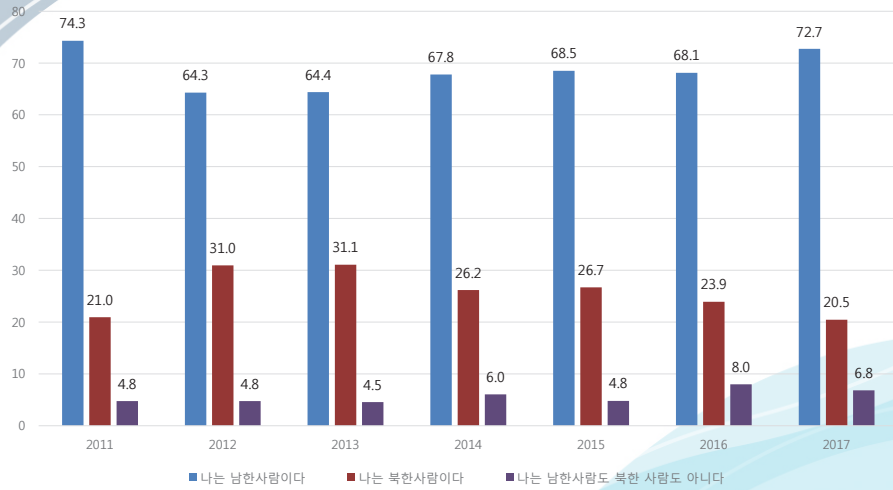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 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37(60.7)	18(29.5)	5(8.2)	1(1.6)	61(100)
다소 친근	7(10.9)	39(60.9)	18(28.1)	0(0)	64(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3(27.3)	7(63.6)	1(9.1)	11(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1(50)	1(50)	0(0)	2(100)
합계(빈도)	44(31.9)	61(44.2)	31(22.5)	2(1.4)	138(100)

남한주민 친근감과 포용성 교차표 (2017)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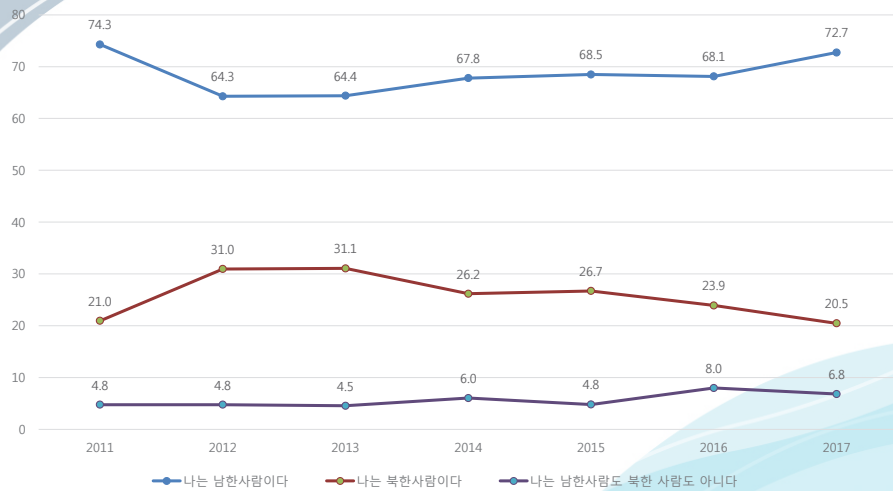
	매우 포용적	다소 포용적	별로 포용적 이지 않음	전혀 포용적 이지 않음	합계
매우 친근	26(53.1)	20(40.8)	3(6.1)	0(0)	49(100)
다소 친근	7(9.6)	51(69.9)	14(19.2)	1(1.4)	73(100)
별로 친근하지 않음	0(0)	0(0)	8(100)	0(0)	8(100)
전혀 친근하지 않음	0(0)	0(0)	2(100)	0(0)	2(100)
합계(빈도)	33(25)	71(53.8)	27(20.5)	1(0.8)	132(100)

국민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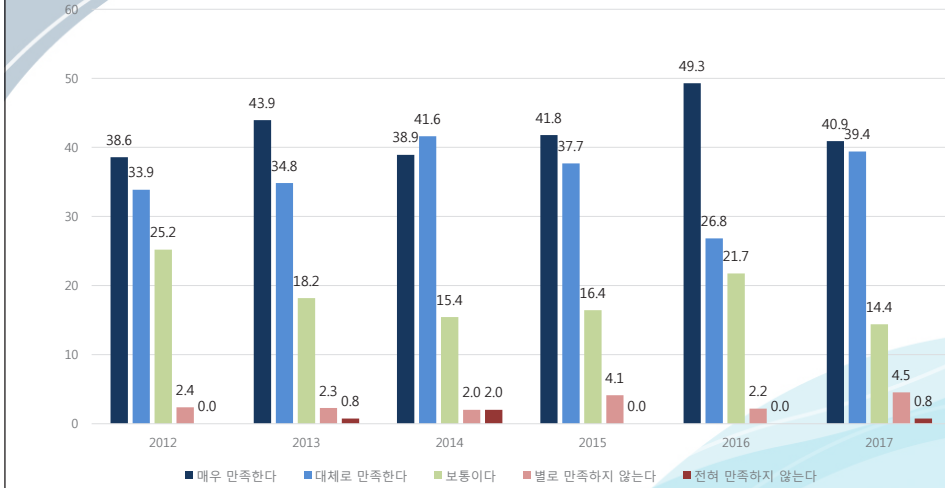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국민 정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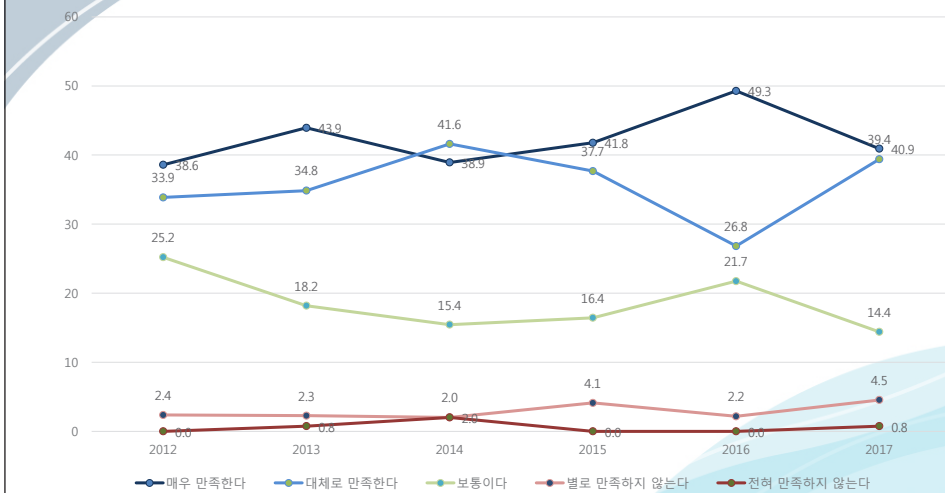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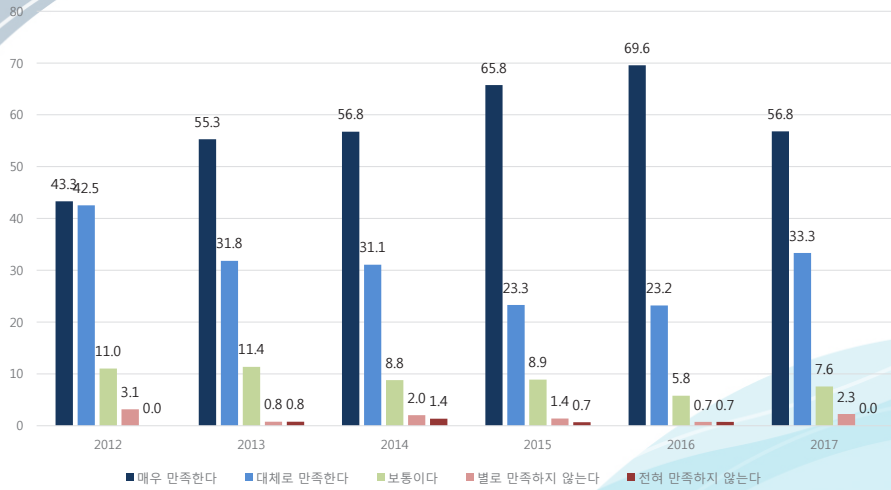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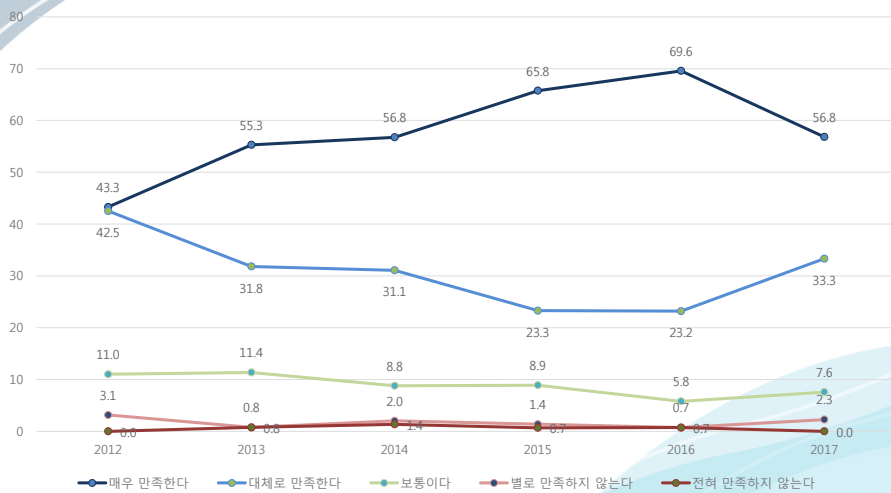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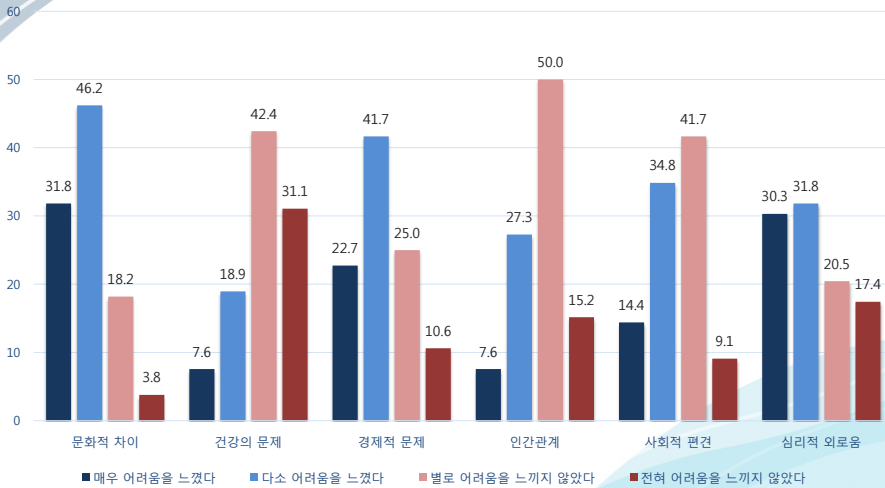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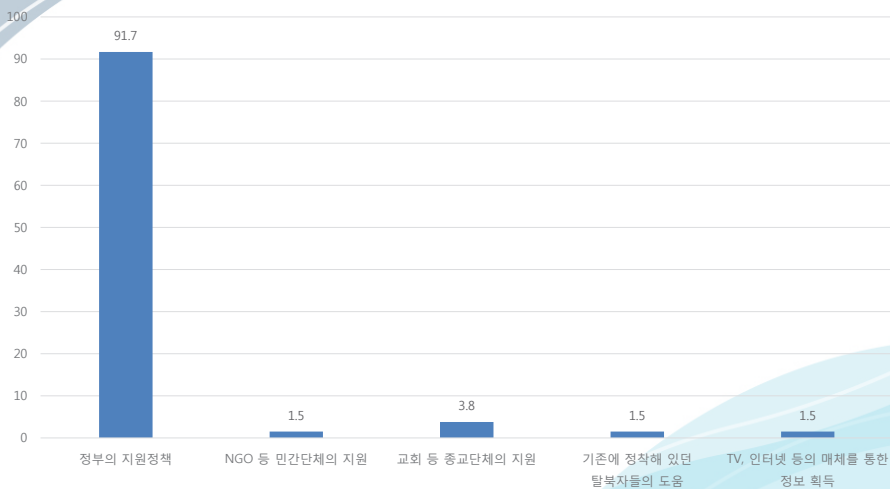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정착과정에서 겪는 어려움(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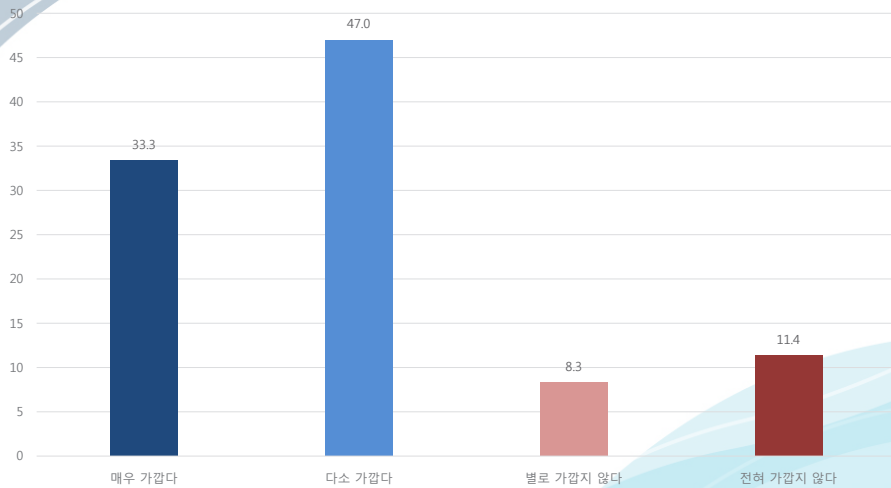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적응에 도움을 준 요인(2017)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 정도(2017)



결론 (1)

- 2016년 조사와 비교하여 세 개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됨.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남.
 - 친근감: 2016년 긍정 90.6%, 2017년 긍정 92.4%
 - 포용성: 2016년 긍정 76.1%, 2017년 긍정 78.8%
- 하지만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폭넓게 증가한 특징.
 -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016년 44.2% → 2017년 37.1%
 -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2016년 46.4% → 2017년 55.3%
 - 매우 포용적이다: 2016년 31.9% → 2017년 25%
 - 약간 포용적이다: 2016년 44.2% → 2017년 53.8%

결론 (2)

-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증가 (68.1%→72.7%)하고 북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감소 (23.9%→ 20.5%).
- 남한생활의 만족도 역시 전년에 비해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증가 (매우 만족 49.3% →40.9%, 대체로 만족 26.8% →39.4%)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전년대비 다소 감소 (만족 92.8% →90.1%)
- 남한적응에서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이 올해 추가됨(매우+다소 어려움).
 - 문화적 차이(78.0%)>경제적 문제(64.4%)>심리적 외로움(62.1%)>사회적 편견(59.2%)>인간관계(34.9%)>건강문제(26.5%)의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결론 (3)

- 남한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압도적 선택 (91.7%)
 - 탈북 후 1년 미만, 하사원 입소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에 노출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매우 가깝다 33.3%, 다소 가깝다 47.0%)
 - 별로 가깝지 않거나(8.3%) 전혀 가깝지 않다(11.4%)는 의견도 전체 1/5을 차지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 실태 (요약)

천경호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남한적응실태 전반

- 2017년 북한이탈주민 남한적응실태 부분에서는 2016년 조사와 비교하여 다음의 세 개의 새로운 문항이 추가되었음.
 - 44. 귀하는 남한에 거주하면서 다음의 사항에 대해 얼마나 어려움을 느끼셨습니까?
(문화적 차이, 건강문제,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사회적 편견, 심리적 외로움)
 - 46. 귀하가 남한 생활에 적응하시는 데 있어 가장 도움이 된 것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정부지원정책, 민간단체지원, 종교단체지원, 기존 탈북자 도움, 미디어를 통한 정보획득)
 - 47. 귀하의 현재 남한 생활은 귀하가 북한에서 살고 계실 때 생각했던 남한의 생활과 비교하여 얼마나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과 남한주민의 포용성에 대한 긍정(매우, 다소/약간)과 부정(전혀, 별로)의 비율은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남.
 - 친근감: 2016년 긍정 90.6%, 2017년 긍정 92.4%
 - 포용성: 2016년 긍정 76.1%, 2017년 긍정 78.8%
- 하지만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폭넓게 증가한 특징
 -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016년 44.2% → 2017년 37.1%
 -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2016년 46.4% → 2017년 55.3%

- 매우 포용적이다: 2016년 31.9% → 2017년 25%

- 약간 포용적이다: 2016년 44.2% → 2017년 53.8%

○ 2016년 조사 결과분석에서 남한주민에게 느끼는 친근감은 추상적인 감정적인 부분으로, 남한주민의 포용성은 구체적인 경험에 기반한 것으로 해석하였고, 이 두 가지 지표를 교차분석하여 긍정-부정의 패턴을 보이는 응답(매우 친근함/별로 포용적이지 않다, 매우 친근함/전혀 포용적이지 않다)에 관심을 두었음. 감정적으로는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서 친근하게 여겼으나 실제 생활을 통해 경험한 포용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 이러한 긍정과 부정의 조합으로 응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여 기대와 현실의 불일치 지표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을 하였음.

○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친근감을 느끼는 시점이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7년의 경우 “귀하는 남한에 오신 후, 남한주민을 얼마나 친근하게 느끼십니까?”로 수정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음. 친근감과 포용성을 느끼는 시점을 모두 남한입국 후로 명시한 2017년 조사에서는 친근감과 포용성에서 긍정-부정의 패턴을 보이는 응답이 다소 감소하였음. (17.0%→13.6%).

○ 국민의식의 경우 남한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증가(68.1%→72.7%)하고 북한 사람으로의 자기정체성이 다소 감소 (23.9%→ 20.5%).

○ 남한생활의 만족도 역시 전년에 비해 강한 긍정은 감소하고 약한 긍정이 증가 (매우 만족 49.3% →40.9%, 대체로 만족 26.8% →39.4%)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책 만족도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함. (만족 92.8% →90.1%)

○ 남한적응에서 어려움의 요인에 대한 질문이 올해 추가됨.

- 문화적 차이(78.0%)>경제적 문제(64.4%)>심리적 외로움(62.1%)>사회적 편견 (59.2%)>인간관계(34.9%)>건강문제(26.5%)의 순으로 어려움(매우+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한사회에 가장 도움이 된 요인으로 정부의 지원정책을 압도적으로 선택 (91.7%)

- 탈북 후 1년 미만이라는 점, 하나원에 2개월간 입소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에 노출될 기회가 아직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

○ 남한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사이 간극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 (매우 가깝다 33.3%, 다소 가깝다 47%). 별로 가깝지 않거나(8.3%) 전혀 가깝지 않다(11.4%)는 의견도 전체 1/5을 차지함.

2. 총평: 2016년 조사와 2017년 조사의 차이와 그 요인

○ 2017년 조사의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볼 때, 2016년 대비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성별과 소득부분임. 이전 조사들과 비교하여 응답자 중 남성의 비율이 현저히 높아졌으며(남성 53%, 여성 47%) 소득수준도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6년과 비교하여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의 응답이 감소하고 약한 긍정과 약한 부정의 응답이 증가한 것을 이러한 인구통계학적인 차이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2016년과 2017년 조사 사이에 있었던 국내 정세의 급격한 변화도 중간적인 응답의 증가라는 차이를 가져온 요인의 하나로 작용했을지 면밀히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남한적응실태를 북한이탈 1년 미만인 그룹으로 한정지어 일 년 단위로 응답자 pool을 바꿔가며 조사를 하는 것이 정착과정을 알아보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은 여전히 유효함.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6

의식주 생활변화와 정보화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2017 북한사회변동조사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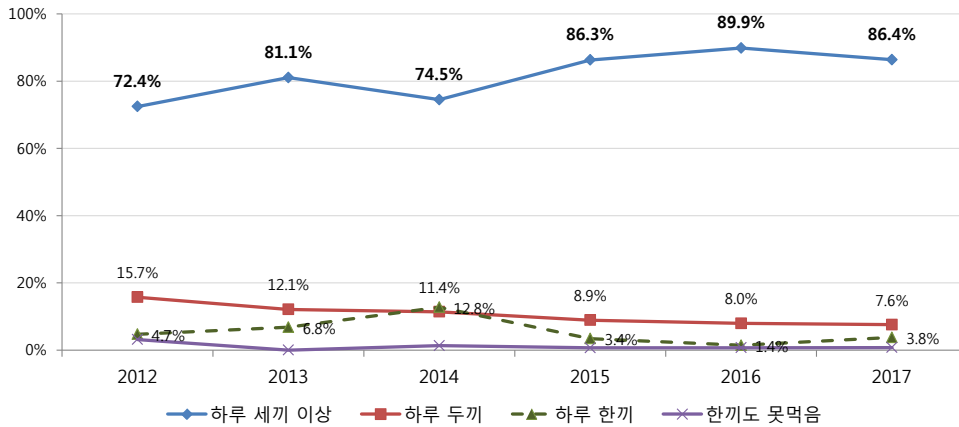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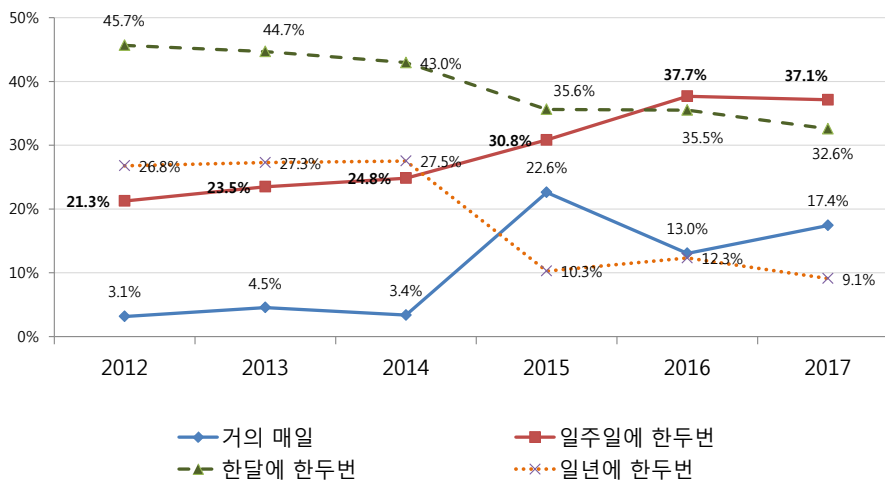
- 의·식·주 생활상
- 월평균 생활비 지출항목의 변화 : 연도별, 계층별 추이
- 일상생활 : 일상생활 고민, 자녀 사교육, 가정 내 의사결정
- 남한제품 사용경험
- 정보화 : 계층별 격차

식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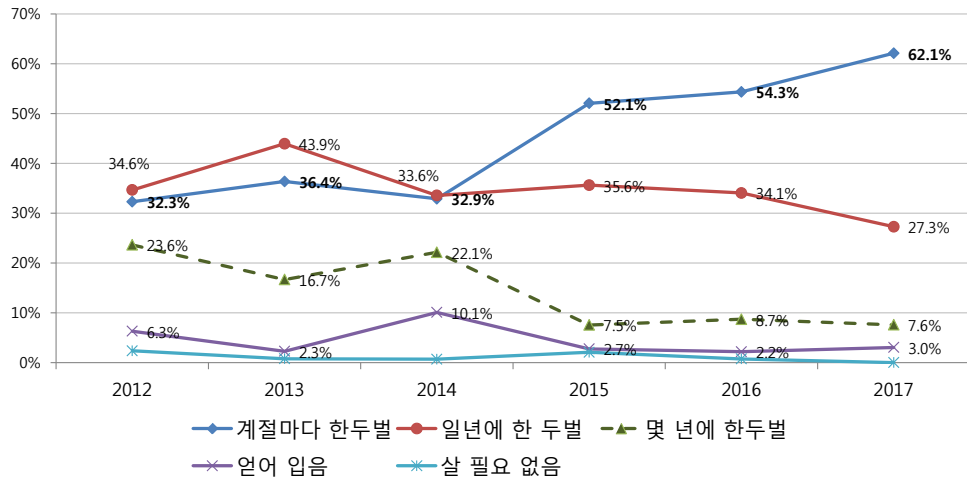
- 탈북 직전 하루 식사 횟수, 고기 식사 횟수 :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2015년 이후 식생활이 안정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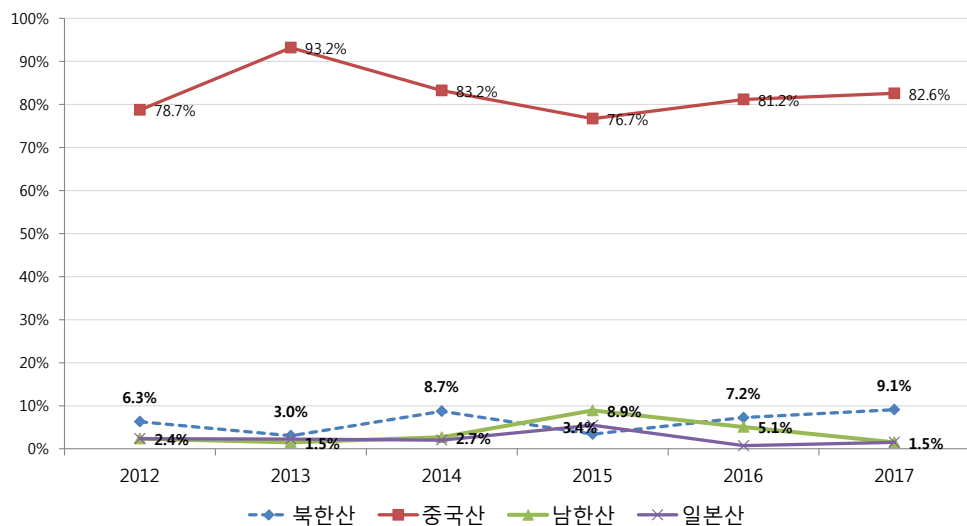
식생활 : 탈북 직전 고기식사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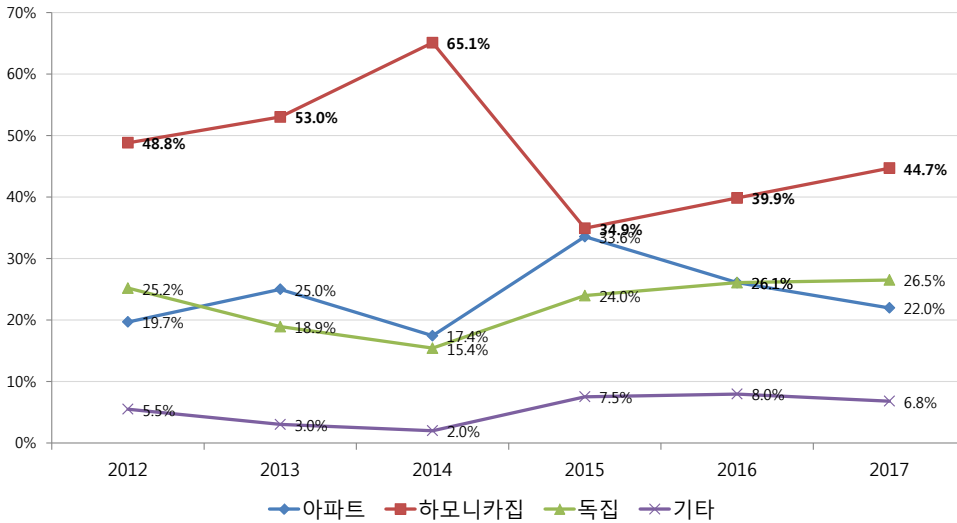
의생활 : 옷 구입 횟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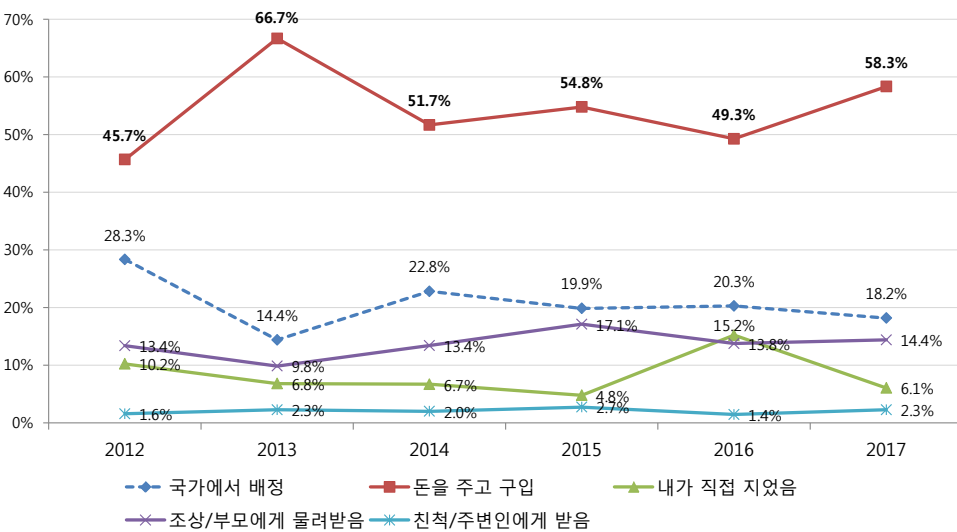
의생활 : 구입한 옷의 원산지 (중국>북한>남한)



주생활 : 살림집의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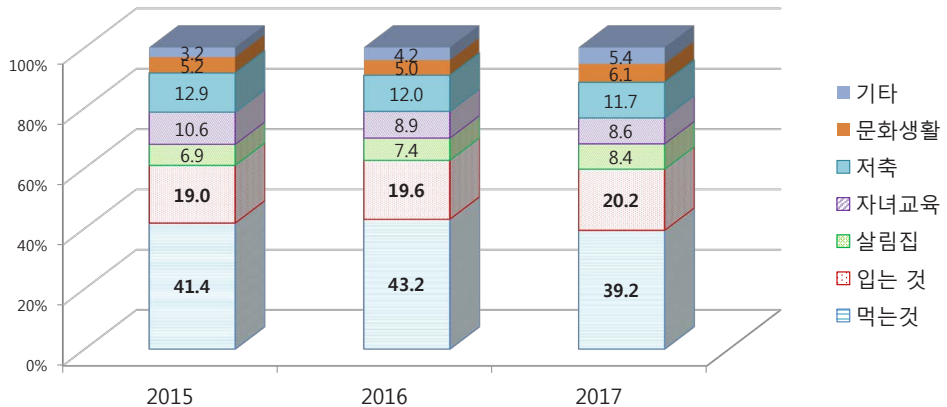


주생활 : “돈 주고 살림집 구입” 응답 증가



월평균 지출 항목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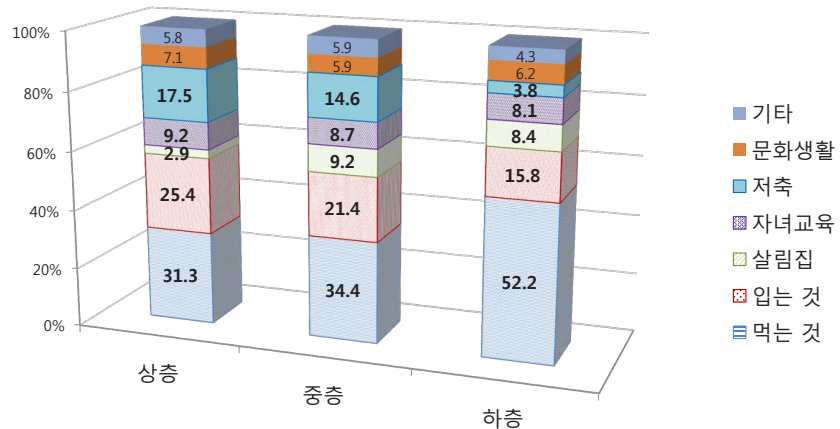
(연도별, 단위: %)



- 식비 비중이 약간 감소, 의료비와 주거비 비중이 약간 증가하는 변화
- 전체적으로 지난 3년 간 큰 변화는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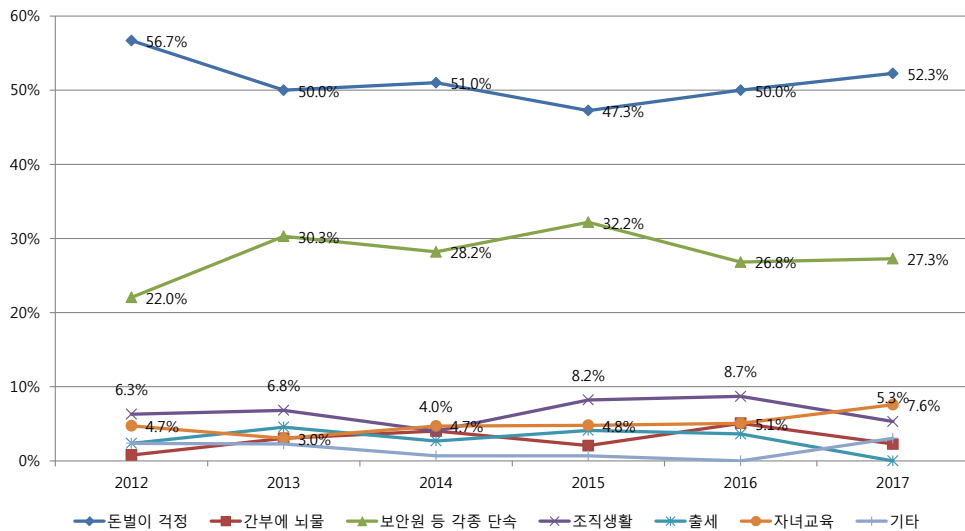
월평균 지출항목 비중: 계층*별 격차 (2017, 단위: %)

(* 탈북 직전 주관적 계층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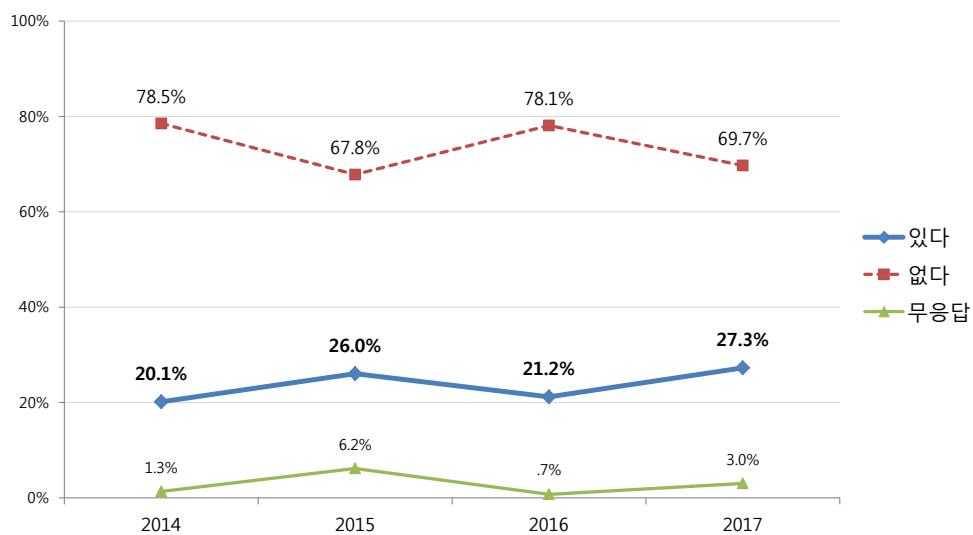


- 계층별로 생활비 지출 패턴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남.
- 하층은 식비 지출이 많고 문화비는 상대적으로 낮음.
- 반면 상층은 의료비용과 저축, 문화비 비중이 높은 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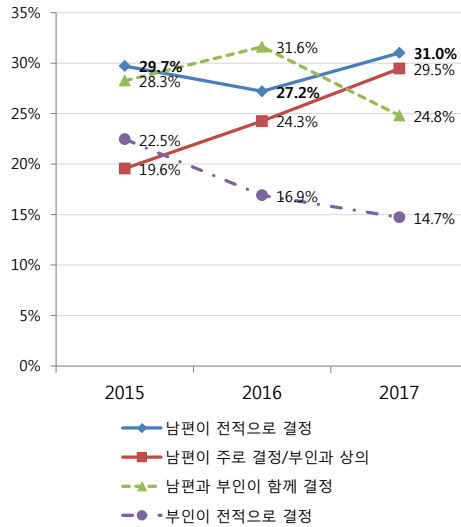
일상생활의 고민 : 돈벌이> 단속> 자녀교육



북한에서 자녀 사교육 경험 : 증가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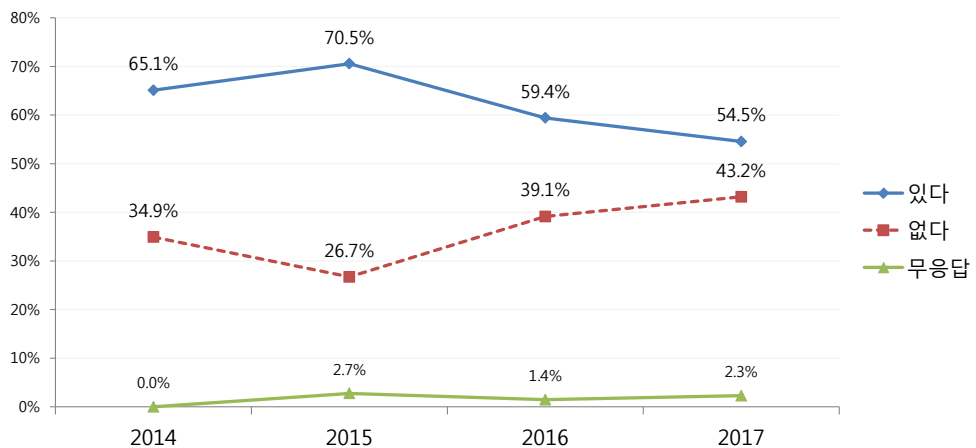


가정 내 의사결정 : 여성과 남성의 동상이몽?



(2015~2017)	성별		총계
	남자	여자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65	53	118
	37.8%	22.9%	29.3%
남편이 주로 결정하되 부인과 함께 상의하였다	55	43	98
	32.0%	18.6%	24.3%
남편과 부인이 함께 상의하여 결정하였다	44	70	114
	25.6%	30.3%	28.3%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하였다	8	65	73
	4.7%	28.1%	18.1%
합계	172	231	403
	100.0%	100.0%	100.0%

남한물건 사용경험 : 2015년 이후 감소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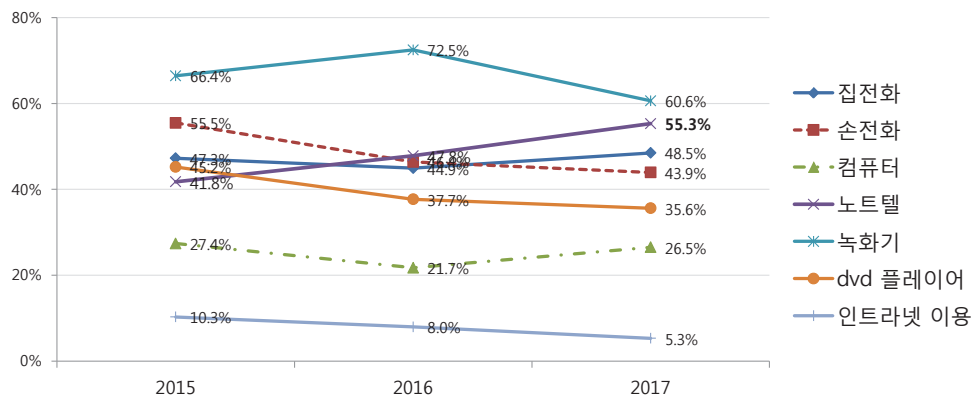


사용해본 남한산 제품의 종류 (중복응답)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누계
의류	60	75	50	48	233
식품류	46	45	38	25	154
잡화	40	35	45	26	146
가전	29	32	22	29	112
기타	9	5	1	4	19
합계	184	192	156	132	

- 북한 주민들이 남한 제품 사용 경험이 전반적으로 감소.
- 품목별로는 의류>식품>잡화>가전의 순서임. 의류는 지속 감소하는 가운데 가전은 소폭 증가하였음.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



- 손전화, 인트라넷 이용은 다소 감소
- 녹화기, DVD 플레이어 감소하는 반면 노트북이 급증
- ❖ 노트북 : CDR, USB로 동영상 재생하는 기기 (evd player)

'노트텔을 아시나요'...北 주민의 남한드라마 시청법

윤영현 기자

입력 : 2016.12.29 09:39 | 수정 : 2016.12.29 16:47

15,608 0



대영호 전 주(駐) 영국 북한대사관 공사가 북한 내 남한드라마의 폭발적인 인기를 언급하면서 주민들의 시청행태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의 철권통치' 하에서도 노트텔이라는 조잡한 미디어 기기를 통해 남한드라마를 애청하고 드라마 속 주인공을 따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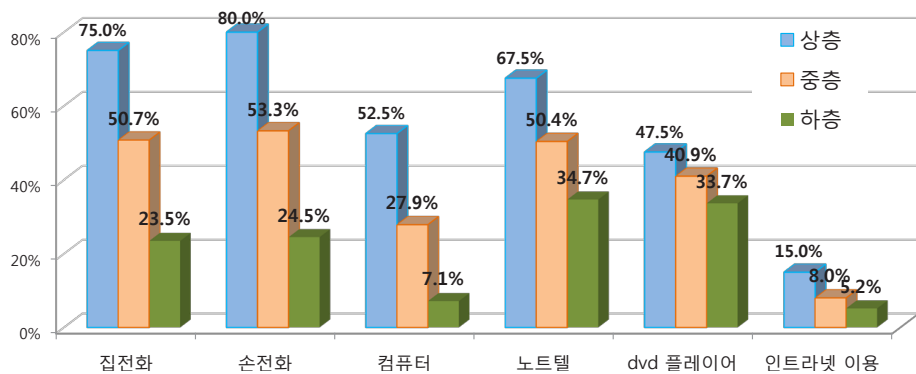
말투를 흉내 내다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지만 북한에서의 남한드라마 사랑은 좀처럼 식지 않아 이미 북한 젊은이들의 삶과 행동에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 등에 따르면 남한드라마는 대부분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CDR'(CD에 기록하는 장치)이나 'USB'에 담겨 북한에 몰래 반입돼 유통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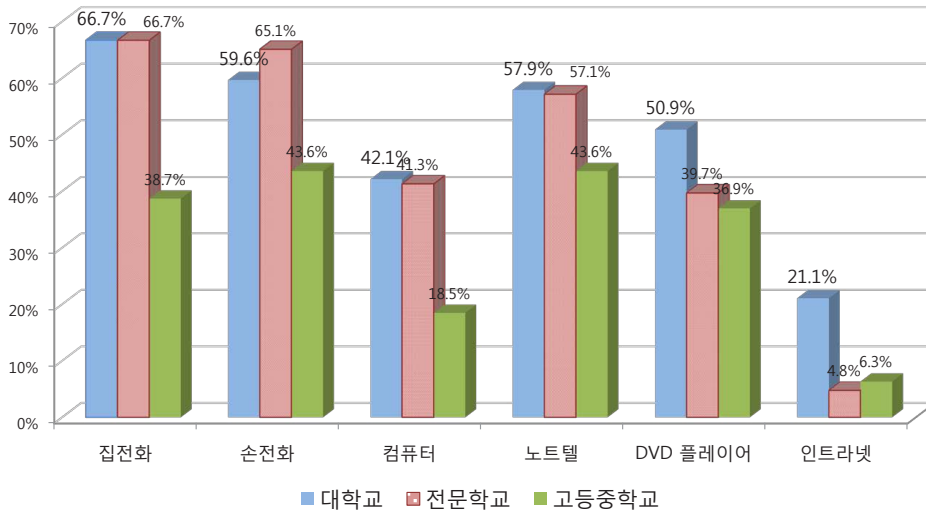
정보화 : 계층별* 격차 (2015~2017 합산)

(* 탈북 직전 주관적 계층귀속)



- 일반화에 유의해야 하지만, 스스로 '상층'이라 응답한 사람 중 80%가 손전화, 52.5%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
- 정보화 기기 및 인트라넷 이용은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나며, 북한 사회에서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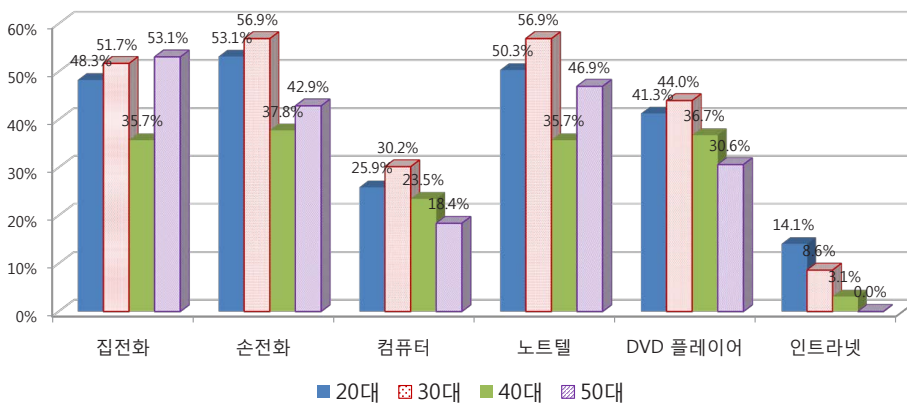
정보화 : 교육수준별 (2015~2017 합산)



* 인민학교, 무학자는 사례수가 너무 적어 제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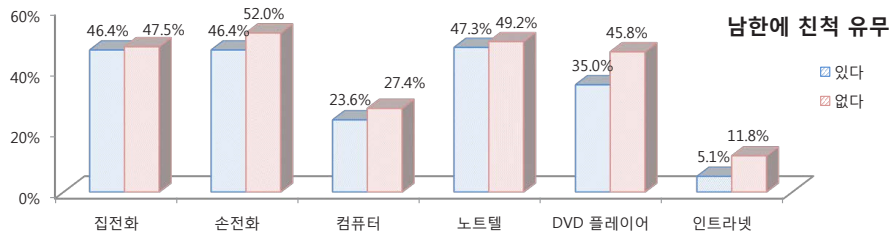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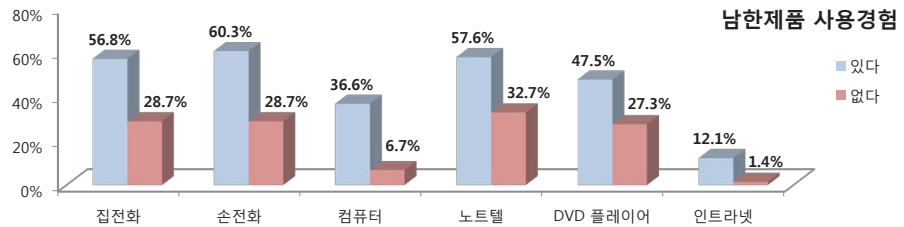
정보화 : 연령대별 (2015~2017 합산)

- 30대가 손전화, 컴퓨터, 노트북, dvd 플레이어 등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음.
- 인터넷 이용 경험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손전화, 노트북 등에서는 50대의 정보기기 접촉이 40대보다 더 높게 나타남.



* 60대 이상은 사례수가 너무 적어 제외함

정보화 : 남한 제품 사용/ 남한 친척 유무 (2015~2017 합산)



의식주 생활과 정보화 (요약)

황정미 (강원대 사회과학연구원)

1. 의식주 생활상

○ 식생활은 2015년 이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하루 세 끼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86.4%였고, 고기를 매일 또는 주 1회 이상 먹는다는 응답이 54.5%로 나타났음. 전체적으로 음식의 양은 상당히 충족되는 가운데 다양성은 다소 부족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1〉 탈북직전 생활상 - 고기 식사 횟수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거의 매일	4	6	5	33	18	23
	3.1%	4.5%	3.4%	22.6%	13.0%	17.4%
일주일에 한두번	27	31	37	45	52	49
	21.3%	23.5%	24.8%	30.8%	37.7%	37.1%
한달에 한두번	58	59	64	52	49	43
	45.7%	44.7%	43.0%	35.6%	35.5%	32.6%
일년에 한두번	34	36	41	15	17	12
	26.8%	27.3%	27.5%	10.3%	12.3%	9.1%
먹어본적 없음	2	0	2	1	1	4
	1.6%	0.0%	1.3%	0.7%	0.7%	3.0%
무응답	2	0	0	0	1	1
	1.6%	0.0%	0.0%	0.0%	0.7%	0.8%
합계	127	132	149	146	138	1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북한 주민들의 의류 구매가 확연하게 증가하고 있음. “계절마다 한두 벌 구입”한다는 응답이 2012년 32.3%에서 2015년 52.1%, 2017년 조사에서는 62.1%로 급격하게 늘어났음.
- 옷의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 비중이 82.6%로 가장 많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중국산 옷이 감소하는 가운데 북한산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다소 증가하였음. 아울러 남한산 옷을 구입했다는 응답자가 크게 줄었음(2016년 5.1%→ 2017년 1.5%). 남북한 교역 축소 및 국제적 경제제재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살림집의 형태는 하모니카집(연립주택) (44.7%), 독집(26.5%), 아파트(22.0%)의 순으로 나타났음. 2015년 이후 아파트 거주 비율이 다소 감수하고 하모니카 집이 증가하는 추세임.
- 살림집을 취득한 경로를 보면 “돈을 주고 구입했다”는 비율이 58.3%로 가장 높음. “국가에서 배정”받았다는 응답은 18.2%로 감소추세임. 북한에서도 주택을 거주자가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임.

2. 월평균 지출항목의 비중

- 월평균 지출이 어느 항목에 어떤 비중으로 쓰이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응답하도록 한 결과, 식비가 39.2%, 의류비 20.2%, 저축 11.7%, 살림집 관련 비용 8.4%, 자녀교육 8.6%, 문화생활 6.1% 등으로 나타났음(평균값). 식비의 비중이 2015년 41.4%에서 소폭 감소하는 반면 의류비는 약간 증가하였음.
- 월평균 지출 항목은 계층 (탈북 직전의 주관적 계층 지위)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2017년 조사 결과를 보면 스스로 ‘상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식비 31.3%, 의류비 25.4%, 저축 17.5%로 응답한 반면, ‘하층’인 사람은 식비가 52.2%로 크게 높은 반면 의류비(15.8%)와 저축(3.8%) 비중은 훨씬 낮았음. 계층에 따른 지출 패턴의 변화는 북한 사회의 양극화 내지 계층 격차의 증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추세임.

3. 일상생활의 고민과 자녀교육, 가정 내 의사결정

- 일상생활에서 가장 고민되는 일로는 ‘돈벌이’(52.3%), ‘보안원 등 각종 단속’(27.3%)에 이어 ‘자녀 교육’(7.6%)을 꼽는 사람들이 많았음. 2012년부터 조사 추이를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나타남.
- 북한에서 자녀의 사교육을 위한 개인 강습을 했다는 응답도 2014년 20.1%에서 2017년 27.3%로 증가하였음.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고민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엿보임.
- 가정 내 의사결정에서는 올해 조사에서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한다는 응답(31.0%)이 증가하였음. 이는 올해 응답자 중 남성 비중이 예년보다 높아진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3년간(2015~17년)의 조사결과를 종합하면, 성별에 따라 가정 내 의사결정에 대한 응답이 확연하게 갈라짐. 즉, 여성들은 “남편과 부인이 함께 결정”(30.3%)하거나 “부인이 전적으로 결정”(28.1%)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반대로 남성들은 “남편이 전적으로 결정”(37.8%), “부인과 상의하여 남편이 주로 결정”(32.0%)한다는 응답이 많았음.

〈표 2〉 북한 거주시 일상 고민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돈벌어야 하는 걱정	72	66	76	69	69	69
	56.7%	50.0%	51.0%	47.3%	50.0%	52.3%
간부에게 뇌물 고이는 것	1	4	6	3	7	3
	.8%	3.0%	4.0%	2.1%	5.1%	2.3%
보안원/보위부 각종 단속	28	40	42	47	37	36
	22.0%	30.3%	28.2%	32.2%	26.8%	27.3%
조직생활	8	9	6	12	12	7
	6.3%	6.8%	4.0%	8.2%	8.7%	5.3%
출세	3	6	4	6	5	0
	2.4%	4.5%	2.7%	4.1%	3.6%	0.0%
자녀교육	6	4	7	7	7	10
	4.7%	3.0%	4.7%	4.8%	5.1%	7.6%
기타	3	3	1	1	0	4
	2.4%	2.3%	.7%	.7%	0.0%	3.0%
무응답	6	0	7	1	0	3
	4.7%	0.0%	4.7%	0.7%	0.0%	2.3%
합계	127	132	149	146	138	132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4. 남한물건 사용 경험

-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물건을 사용해본 적이 있다는 응답은 54.5%로 지난 2015년(70.5%), 2016년(59.4%)에 비해 계속 감소하고 있음.
- 사용해본 남한산 물품의 종류를 살펴보면((2014~17년 조사결과 합산), 의류가 가장 많았고 식품류, 잡화(시계, 신발 등), 가전제품 등의 순이었음. 의류는 북한 주민들이 가장 많이 접해본 품목이지만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며, 가전제품은 접촉 경험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됨.

5. 정보통신기기 보유 및 이용의 추이

- 2015년부터 정보통신 관련 기기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집전화, 손전화, dvd 플레이어, 녹화기, 인트라넷 이용 등 대부분 항목에서 정보화 기기 이용이 감소하는 추세가 나타남. 그러나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노트텔(55.3%)로 조사됨. CD나 USB 저장장치 등을 통해 동영상을 재생하는 노트텔(evd 플레이어: enhanced versatile disc player)은 값싸게 남한 드라마 등을 시청할 수 있는 기기로 알려져 있음.
- 북한 사회에서 진행되는 정보화 추세가 어떤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함. 지난 3년간 (2015~17년) 정보화 기기 보유 및 이용 실태를 계층별(탈북 직전 주관적 계층), 교육 수준, 연령대, 그리고 남한 물품 사용 경험 여부, 남한 친척 유무 등의 변인들과 교차하여 분석하였음.
 - 정보화 경험은 계층별로 가장 큰 차이가 나타남. 일반화에 유의해야 하지만, 스스로 '상층'이라 응답한 사람 중 80%가 손전화, 52.5%가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 정보화 기기 및 인트라넷 이용은 계층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나며, 북한 사회에서 경제적 형편에 따라 정보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손전화, 컴퓨터, 노트텔, dvd 플레이어 등의 보유율이 가장 높았음. 단, 인트라넷 이용 경험은 20대가 가장 높게 나타남. 또한 50대의 정보화 기기 보유도 40대와 큰 차이가 없거나 더 높은 경향도 주목됨. 특히, 손전화, 노트텔 등은

50대가 40대보다 더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수준 별로 보면, 대학교와 전문학교 학력자 간에는 손전화나 컴퓨터, 노트북 보유에 거의 차이가 없었고, 학력별 차이는 계층별 차이에 비해 두드러지지 않는 추이를 보임. 다만 인트라넷 이용 경험은 대학교 학력자가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남한사회와의 접촉, 즉 남한 제품 사용 경험이나 남한에 친척이 있는지에 따라 정보화 경험에 영향이 있는지 살펴본 결과, 남한 제품을 사용해본 사람들은 정보화 기기 보유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정보화 수준과 남한 제품에 대한 관심이 중첩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추세임. 그러나 남한 친척 유무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음.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7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사적 경제활동의 동향

경제적 계층 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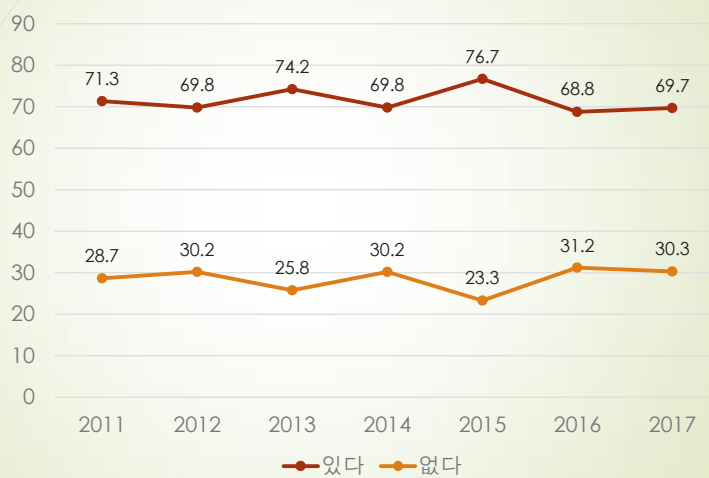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결론-특징과 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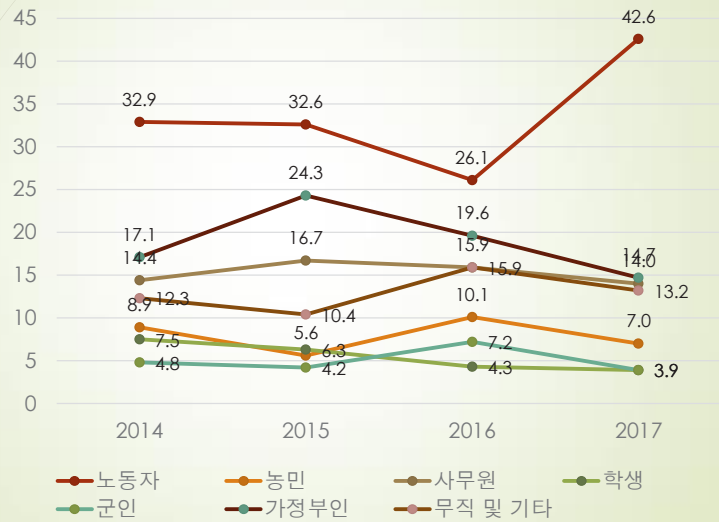
시장화-사적 경제활동

- 직업과 장사 경험
- 주요 소득원
- 애로사항
- 뇌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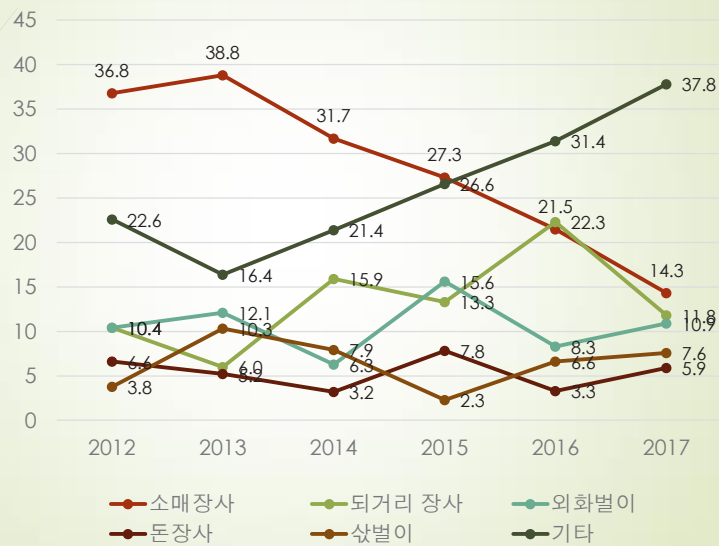
장사 경험의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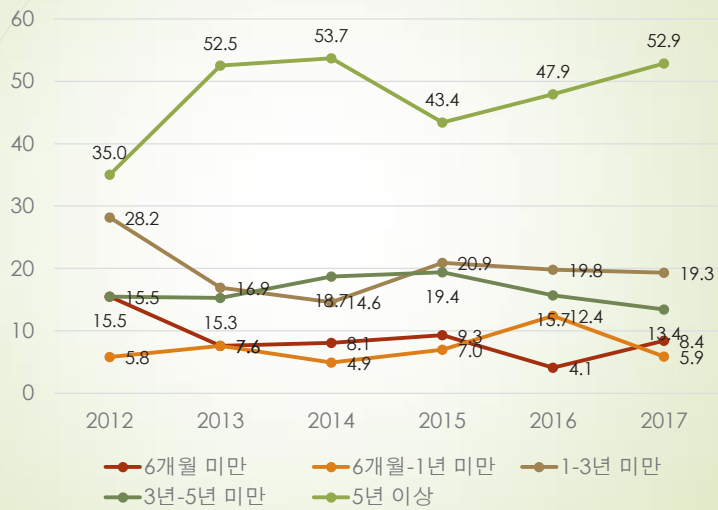
공식적인 직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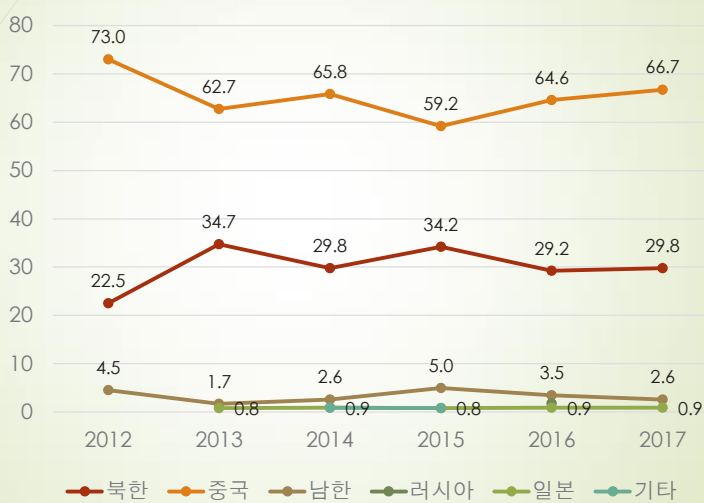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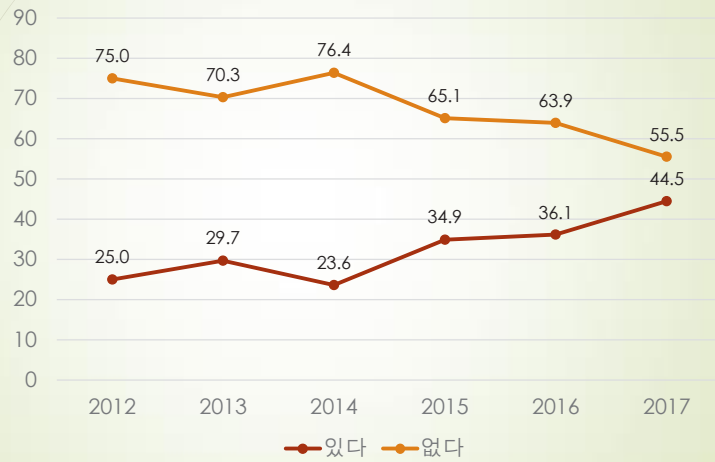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 근무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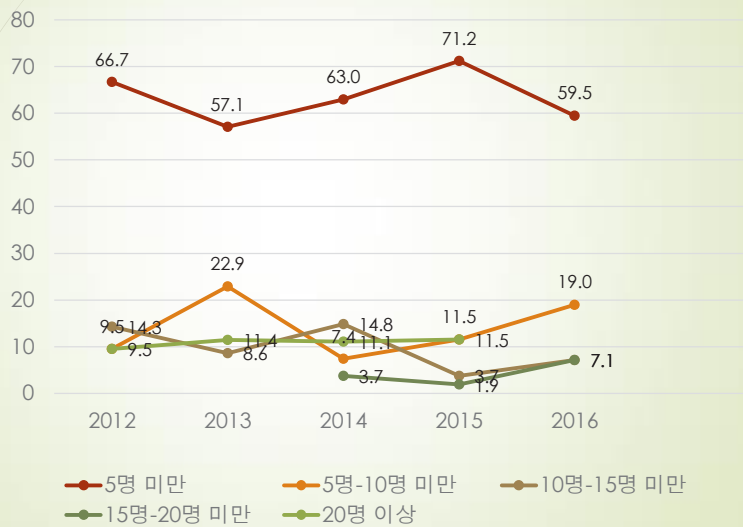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 재료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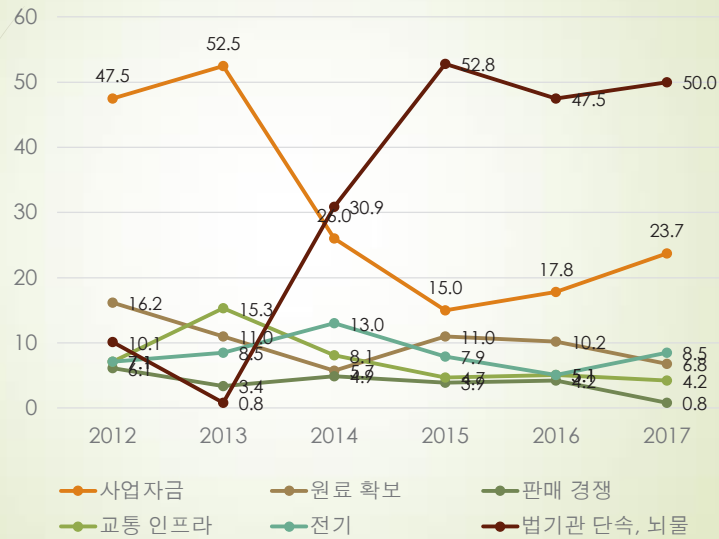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고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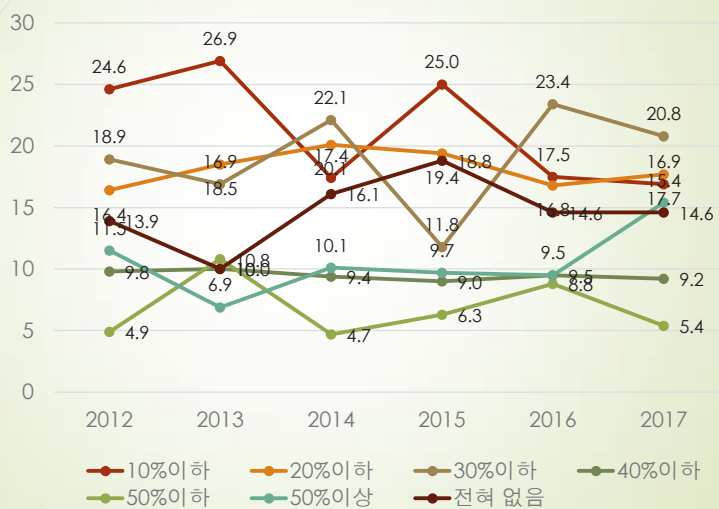
주요 수입원- 고용 인원수



주요 수입원- 애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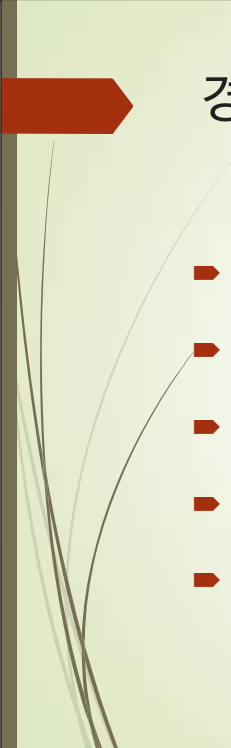


수입 중 뇌물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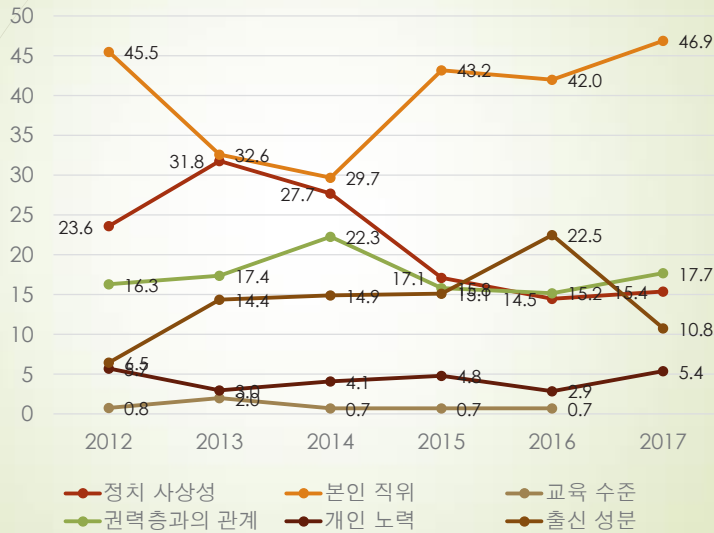
경제적 계층 분화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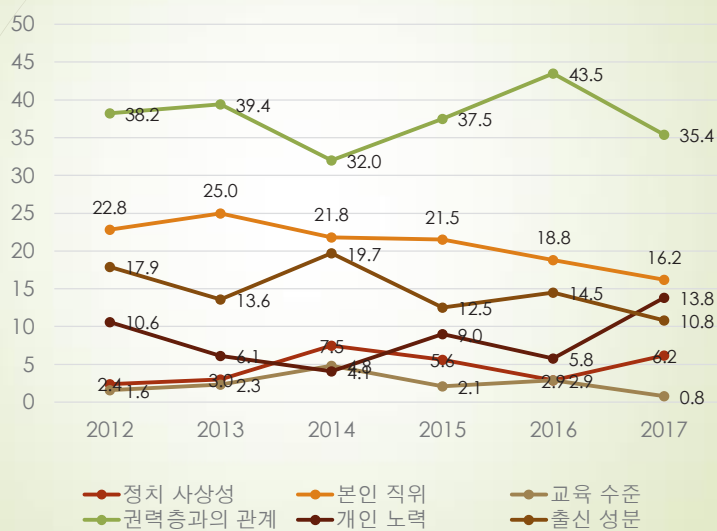
경제적 계층 분화에 대한 인식

- ▶ 1순위: 본인직위의 높고 낮음
- ▶ 2순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 ▶ 3순위: 출신성분의 차이
- ▶ 교육 수준의 차이, 개인의 노력 등은 모두 낮은 순위
- ▶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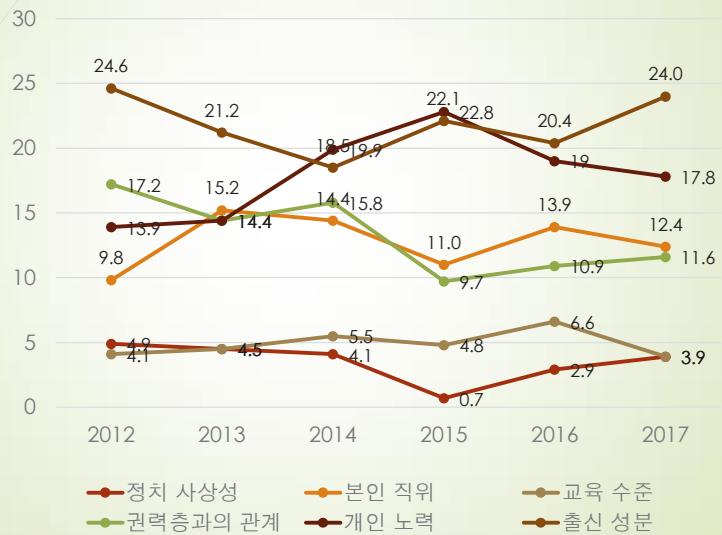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1순위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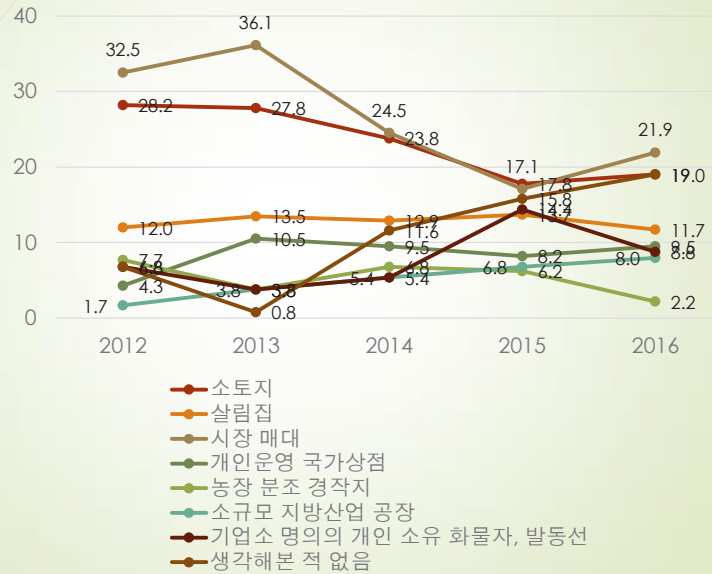


경제적 계층 분화 이유-3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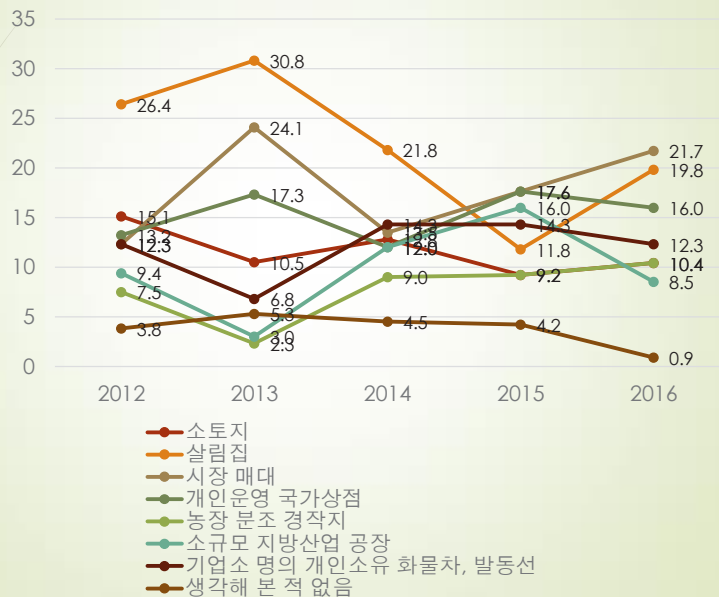


경제개혁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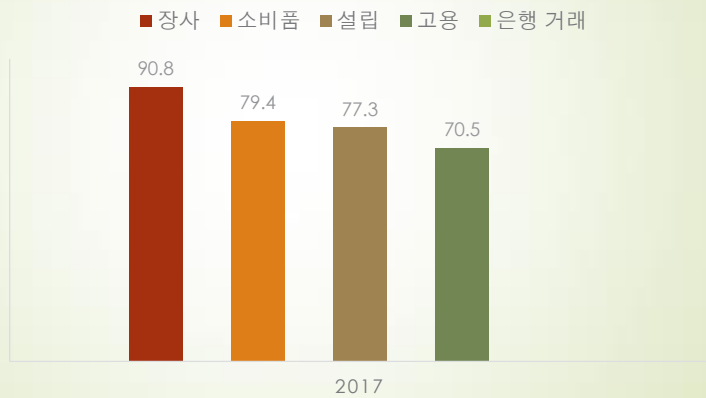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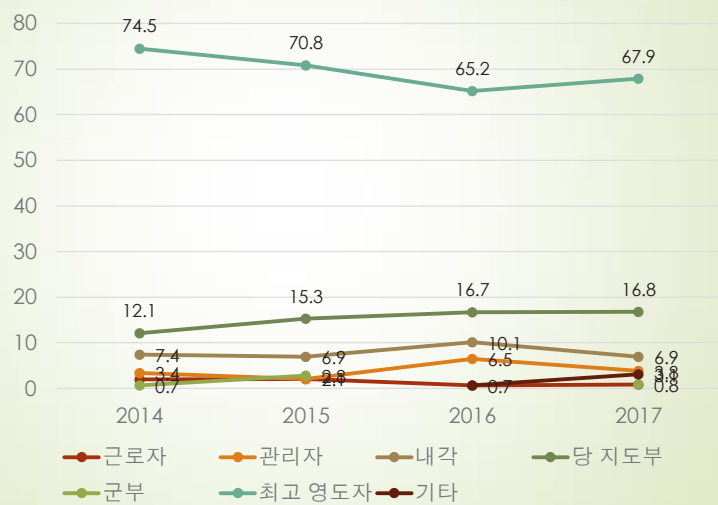
우선적 상거래 대상 인식-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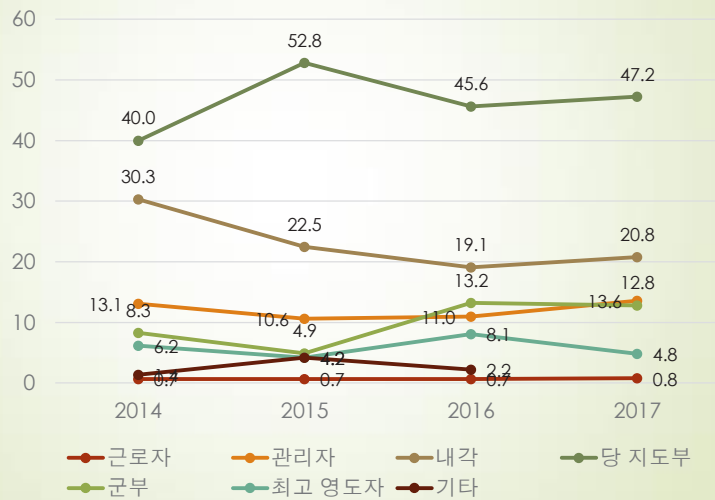
영역별 자유보장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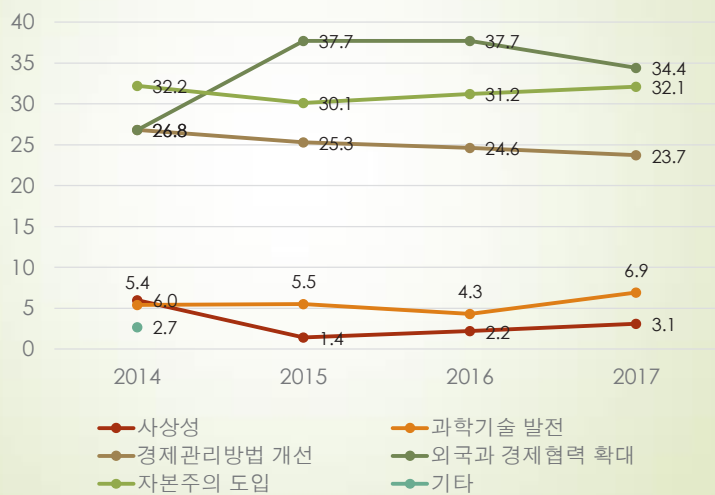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경제 어려운 원인 1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경제 어려운 원인 2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잘 살기 위해 필요한 조건



결론-특징과 함의

1. 시장화

- ▶ 2016년 이후 노동자 비율 급증
- ▶ 소매장사의 비율이 급감
- ▶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 - 67%가 중국산, 북한산이 29.8%로 여전히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
- ▶ 법기관의 집행과 뇌물로 인한 어려움이 50%
- ▶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

결론-특징과 함의

2. 경제적 계층 분화

- ▶ 1순위: 본인직위의 높고 낮음
- ▶ 2순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
- ▶ 3순위: 출신성분의 차이
- ▶ 교육 수준의 차이, 개인의 노력 등은 모두 낮은 순위
- ▶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

결론-특징과 함의

3. 장사 경험 및 상거래에 대한 인식

- ▶ 약 70%가 장사 경험이 있음
- ▶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해서 시장 매대가 가장 많은 응답
- ▶ 90.8%가 장사에 있어서 자유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
- ▶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장사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증대 유추 가능

결론-특징과 함의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 ▶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은 최고 영도자와 당 지도부
- ▶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정책
- ▶ 1위: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 2위: 자본주의 도입
- ▶ 35세 미만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35-55세 미만은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선호
- ▶ 월급이 많은 계층은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선호, 월급이 적은 계층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시장화, 소득분화, 경제개혁 인식 (요약)

천자현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1. 시장화

- 공식적인 직업은 노동자가 가장 많은 비율
 - 특히 2016년 이후 노동자 비율 급증
 - 주요 수입원에서 소매장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음.
 - 기타 영역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기타 영역 중 밀수가 13%로 가장 높은 비중
 - 주요 수입원에서 원부자재나 상품의 출처를 보면 67%가 중국산, 북한산이 29.8%로 여전히 중국산 수입에 크게 의존
 - 최종소비재나 중간재의 국산화 성과 의문
- 경제활동에서 어려운 점
 - 법기관의 집행과 뇌물로 인한 어려움이 50%
 - 2013년부터 급격히 증가
 - 반면, 사업자금의 부족은 2013년부터 감소 추세

2. 경제적 계층 분화

- 경제적 계층 분화의 이유
 - 1순위: 본인직위의 높고 낮음

- 2순위: 권력층과의 안면관계 때문
- 3순위: 출신성분의 차이
- 교육 수준의 차이, 개인의 노력 등은 모두 낮은 순위

○ 경제적 계층 분화에 대한 인식

-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인식
- 현재의 구조 내에서는 개인의 노력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는 차이를 끌어내기 어렵다고 느끼고 있음을 유추해 낼 수 있음.

3. 장사 경험 및 상거래에 대한 인식

- 약 70%가 장사 경험이 있음.
-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해서 시장 매대가 가장 많은 응답
- 이를 바탕으로 자유로운 장사에 대한 필요성 및 요구 증대 유추 가능
- 우선적 상거래 대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다’는 응답이 2014년부터 높은 비중
-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영역들 중(장사, 소비품, 설립, 고용, 은행거래) 장사에 있어서는 90.8%가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응답
- 다른 영역들에서도 70%를 웃도는 응답자가 자율성 보장 필요하다고 인식

4. 경제 개혁에 대한 인식

○ 경제적 어려움의 원인

- 1순위: 최고 영도자
- 2순위: 당 지도부
- 2016년까지는 최고 영도자라는 인식이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의 결과는 다소 증가
- 사실상 근로자 요소(개인적 요소)는 영향이 없다고 인식

- 경제적으로 잘 살기 위한 정책
 - 1위: 외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 2위: 자본주의 도입
 - 35세 미만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35-55세 미만은 경제관리방법 개선을 선호
 - 국가지급 공식 월급별 구분에 있어서는 월급이 많은 계층은 외국과 경제협력 확대 선호, 월급이 적은 계층은 자본주의 도입을 선호

2017 북한 사회변동과 주민의식 변화 “병진노선”의 두 얼굴

• 발표 8

사회보장 실태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북한 사회변동 및 주민의식조사: 사회보장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만족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6	2017	
사회보장만족	5	매우 만족한다	6.0%	5.4%	5.7%
	4	조금 만족한다	1.5%	4.6%	3.0%
	3	보통이다	32.1%	33.1%	32.6%
	2	조금 불만족한다	8.2%	9.2%	8.7%
	1	매우 불만족한다	52.2%	47.7%	50.0%
전체			100.0%	100.0%	100.0%

2016년과 2017년의 사회보장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52.2%, 47.5%로 가장 높았으며, '만족한다(매우 만족하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7.5%, 10.0%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만족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	5	매우 만족한다	6.1%	6.1%
	4	조금 만족한다	6.1%	6.1%
	3	보통이다	30.5%	30.5%
	2	조금 불만족한다	11.5%	11.5%
	1	매우 불만족한다	45.8%	45.8%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고,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2.2%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주민대상)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 (대상: 모든주민)	1	적용	25.8%	25.8%
	0	미적용	74.2%	74.2%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영유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 영유아)	1	적용	8.6%	8.6%
	0	미적용	91.4%	91.4%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6%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어린이)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 어린이)	1	적용	9.4%	9.4%
	0	미적용	90.6%	90.6%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어린이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청소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청소년)	1	적용	4.7%	4.7%
	0	미적용	95.3%	95.3%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노인)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 노인)	1	적용	4.7%	4.7%
	0	미적용	95.3%	95.3%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노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여성)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여성)	1	적용	7.0%	7.0%
	0	미적용	93.0%	93.0%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여성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0%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장애인)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 장애인)	1	적용	4.7%	4.7%
	0	미적용	95.3%	95.3%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지도층)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지도층)	1	적용	73.4%	73.4%
	0	미적용	26.6%	26.6%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지도층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로 나타났다.

무상치료 적용여부(국가공로자)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치료(대상:국가공로자)	1	적용	17.2%	17.2%
	0	미적용	82.8%	82.8%
전체			100.0%	100.0%

무상치료가 국가공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로 나타났다.

무상교육 만족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교육	5	매우 만족한다	9.8%	9.8%
	4	조금 만족한다	13.6%	13.6%
	3	보통이다	34.8%	34.8%
	2	조금 불만족한다	15.9%	15.9%
	1	매우 불만족한다	25.8%	25.8%
전체			100.0%	100.0%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34.8%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41.7%.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23.4%로 나타났다.

무상보육 만족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무상보육	5	매우 만족한다	5.3%	5.3%
	4	조금 만족한다	9.8%	9.8%
	3	보통이다	43.9%	43.9%
	2	조금 불만족한다	16.7%	16.7%
	1	매우 불만족한다	24.2%	24.2%
전체			100.0%	100.0%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3.9%로 가장 높았으며,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40.9%.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5.1%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6	2017	
노령연금	1	있다	29.0%	23.5%	26.3%
	0	없다	71.0%	76.5%	73.7%
전체			100.0%	100.0%	100.0%

노령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29.0%, 2017년에 23.5%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식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령연금_식량 (g)		100.0%	100.0%	100.0%	100.0%	100.0%	92.0%	100.0%	98.8%
	200g	-	-	-	-	-	.7%	-	.1%
	20g	-	-	-	-	-	.7%	-	.1%
	300g	-	-	-	-	-	1.4%	-	.2%
	450g	-	-	-	-	-	.7%	-	.1%
	500g	-	-	-	-	-	.7%	-	.1%
	600g	-	-	-	-	-	2.2%	-	.3%
	700g	-	-	-	-	-	.7%	-	.1%
	감자50	-	-	-	-	-	.7%	-	.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령연금을 600g의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0g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령연금: 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령연금_돈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72.5%	100.0%	95.9%
	1000원	-	-	-	-	-	2.9%	-	.4%
	2000원	-	-	-	-	-	.7%	-	.1%
	2000원	-	-	-	-	-	2.2%	-	.3%
	2500원	-	-	-	-	-	.7%	-	.1%
	30원	-	-	-	-	-	.7%	-	.1%
	500원	-	-	-	-	-	2.2%	-	.3%
	600원	-	-	-	-	-	2.2%	-	.3%
	60원	-	-	-	-	-	2.2%	-	.3%
	7000원	-	-	-	-	-	2.2%	-	.3%
	700원	-	-	-	-	-	9.4%	-	1.4%
	750원	-	-	-	-	-	.7%	-	.1%
	800원	-	-	-	-	-	.7%	-	.1%
	880원	-	-	-	-	-	.7%	-	.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령연금을 7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1,0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노령연금: 정상지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_정상지급	5	매우 그렇다	3.0%	3.0%
	4	그런 편이다	10.6%	10.6%
	3	그저 그렇다	17.4%	17.4%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8.9%	18.9%
	1	전혀 그렇지 않다	50.0%	50.0%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의 정상지급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50%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13.6%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노동자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노동자)	1	지급	32.3%	32.3%
	0	미지급	67.7%	67.7%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사무원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사무원)	1	지급	22.0%	22.0%
	0	미지급	78.0%	78.0%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사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협동농장원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협동농장원)	1	지급	19.7%	19.7%
	0	미지급	80.3%	80.3%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협동농장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당간부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당간부)	1	지급	41.7%	41.7%
	0	미지급	58.3%	58.3%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당간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7%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핵심권력기관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 (지급대상:핵심권력기관)	1	지급	44.1%	44.1%
	0	미지급	55.9%	55.9%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핵심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공로자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공로자)	1	지급	45.7%	45.7%
	0	미지급	54.3%	54.3%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공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로 나타났다.

노령연금: 기타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노령연금(지급대상:기타)	1	지급	15.7%	15.7%
	0	미지급	84.3%	84.3%
전체			100.0%	100.0%

노령연금이 기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5.7%로 나타났다.

공훈연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6	2017	
공훈연금	1	있다	5.9%	11.4%	8.6%
	0	없다	94.1%	88.6%	91.4%
전체			100.0%	100.0%	100.0%

공훈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5.9%, 2017년에 11.4%로 나타났다.

공훈연금: 식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훈연금_식량 (g)		100.0%	100.0%	100.0%	100.0%	100.0%	96.4%	100.0%	99.5%
	2000g	-	-	-	-	-	0.7%	-	0.1%
	25g	-	-	-	-	-	0.7%	-	0.1%
	600g	-	-	-	-	-	1.4%	-	0.2%
	기타	-	-	-	-	-	0.7%	-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훈연금을 600g의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훈연금: 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공훈연금_돈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94.2%	100.0%	99.1%
	2000원						1.4%		0.2%
	2450원						0.7%		0.1%
	2500원						0.7%		0.1%
	2700원						0.7%		0.1%
	3500원						0.7%		0.1%
	600원						0.7%		0.1%
	60원						0.7%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공훈연금을 2,0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폐질연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6	2017	
폐질연금	1	있다	0.7%		0.4%
	0	없다	99.3%	100.0%	99.6%
전체			100.0%	100.0%	100.0%

폐질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0.7%, 2017년에 0.0%로 나타났다.

폐질연금: 식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폐질연금_식량 (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2%	99.9%
	응답오류, 중복응답	-	-	-	-	-	-	0.8%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폐질연금을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폐질연금: 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폐질연금_돈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100.0%	99.9%
	1200원	-	-	-	-	-	.7%	-	.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폐질연금을 1,2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나타났다.

폐질연금: 정상지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연금_정상지급	5	매우 그렇다	0.8%	0.8%
	4	그런 편이다	2.3%	2.3%
	3	그저 그렇다	13.7%	13.7%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19.1%	19.1%
	1	전혀 그렇지 않다	64.1%	64.1%
전체			100.0%	100.0%

폐질연금의 정상지급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64.1%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3.1%로 나타났다.

폐질환: 근무중부상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환(지급대상: 근무중부상)	1	지급	10.3%	10.3%
	0	미지급	89.7%	89.7%
전체			100.0%	100.0%

폐질환이 근무중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로 나타났다.

폐질환: 신체적 질병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환(지급대상:신체적질병)	1	지급	4.0%	4.0%
	0	미지급	96.0%	96.0%
전체			100.0%	100.0%

폐질환이 신체적질병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로 나타났다.

폐질연금:근무중사망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연금 (지급대상:근무중사망)	1	지급	9.5%	9.5%
	0	미지급	90.5%	90.5%
전체			100.0%	100.0%

폐질연금이 근무중사망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로 나타났다.

폐질연금: 모름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연금(지급대상:모름)	1	지급	76.2%	76.2%
	0	미지급	23.8%	23.8%
전체			100.0%	100.0%

폐질연금이 모름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6.2%로 나타났다.

폐질연금:기타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7	
폐질연금(지급대상:기타)	1	지급	5.6%	5.6%
	0	미지급	94.4%	94.4%
전체			100.0%	100.0%

폐질연금이 기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5.6%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상실연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6	2017	
노동능력상실연금	1	있다	0.7%	-	.4%
	0	없다	99.3%	100.0%	99.6%
전체			100.0%	100.0%	100.0%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이 0.7%, 2017년에 0.0%로 나타났다.

노동능력상실연금: 식량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능력상실연금 식량 (g)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99.2%	99.9%
	응답오류, 중복응답							0.8%	.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었다.

노동능력상실연금: 돈

(단위:%)

		조사년도							전체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노동능력상실연금 돈 (원)		100.0%	100.0%	100.0%	100.0%	100.0%	99.3%	100.0%	99.9%
	500원						0.7%		0.1%
전체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노동능력상실연금을 5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7%로 나타났다.

사회보장 실태 (요약)

이철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 사회보장 만족도

- 2016년과 2017년의 사회보장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2016년 52.2%, 2017년 47.7%로 가장 높음.
- 반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전체 8.7%에 불과함
- 2016년과 2017년 사이에 미세한 차이가 있으나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 '만족한다(매우 만족하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7.5%, 10.0%
- 전반적으로 복지시장화와 사경제 활동을 통한 북한주민의 이른바 '셀프복지'가 경제난 이후 장기간 지속되었음.
- 현재 일부 사회보장 급여가 지급되지만 현실적인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이를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
- 그러나 최근 미사일 발사 성공으로 인한 과학기술 노력 영웅 등 다수의 국가공로자, 기존의 6.5 공급대상자 등은 여전히 좋은 대우를 받는다고 사료됨.
- 한편 만족한다는 응답비율 17.5%의 응답층들의 근거에 대한 추적이 필요함.

2. 무상치료

○ 만족도

- 무상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45.8%로 가장 높고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이 11.3%로 부정적인 의견이 57.1%임.

- 반면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2.2%
- 북한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유사하게 최근 북한보건의료제도의 경우 일부 지역, 계층별에 따라 부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는 평가가 주류
- 그러나 대다수 북한 일반 주민들은 불만족 하는 편임.
- 최근 대도시를 중심으로 북한식 의약분업이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짐.

○ 대상별 적용도

- 무상치료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5.8%
- 무상치료가 지도층을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73.4%
- 무상치료가 국가공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7.2%
-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에 대한 응답비율이 '10%' 미만인 반면 국가 지도층에 대한 응답비율이 매우 높음.
- 이는 대내외에 알려진 사실과 거의 동일한 추세임.
- 그러나 중요한 것은 보편적인 보건의료서비스인 북한의 무상치료제가 전 주민에게 적용된다는 응답이 극히 낮다는 것인데, 이는 여전히 북한의 차별 진료 행위와 부족한 의료서비스 공급능력을 반증하는 사례임.

3. 무상교육

○ 만족도

- 무상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34.8%로 가장 높음.
-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41.7%
-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23.4%
- 무상교육은 상대적으로 무상치료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많아 다소 인상적임.
- 그러나 부정적인 응답이 높고 중립적인 답변이 가장 많음.
- 이는 무상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제도적 무상교육, 실질적 유상교육'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
- 무상교육에 대한 북한주민의 평가는 계층별, 지역별, 환경별, 소득별로 그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엇갈린다고 판단됨.

4. 무상보육

○ 만족도

- 무상보육에 대한 만족도는 '보통이다'의 응답비율이 43.9%로 가장 높음
- '불만족한다(매우 불만족한다, 조금 불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40.9%
- '만족한다(매우 만족한다, 조금 만족한다)'의 응답비율은 15.1%
- 무상보육은 무상교육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 추세이나 상대적으로 만족한다는 경향이 무상교육보다 낮음.
- 무상보육 역시 사실상의 유상화가 장기간 진행되었다는 게 대체적인 인식임.(이로 인해 빈곤층은 비공식적인 보육료 부담, 부유층은 탁아소와 유치원의 서비스 내용 불만으로 부분적으로 '자가보육' 추구)
- 30대 젊은 북한세대의 경우,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활동, 육아활동, 가사활동을 병행해야 하는 환경 하에 정상적인 보육이 이들의 소득활동을 보장하는 편임.
-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판단해야 함.(즉, 각 개별 북한주민이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 부담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성향인 반면 사경제활동을 통한 소득이 보육료 부담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성향을 갖는다고 판단됨)

5. 노후보장

○ 인지도

- 노령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29.0%, 2017년 23.5%
- 법률적으로 정식명칭은 '년로연휴금'이나 흔히 사회적 용어로 '연로연금', '연로보장', '양로연금'으로 알려져 있음.
- 전년도보다 인지여부 응답이 낮아진 근거는 이들의 연령이 수급자의 연령보다 낮기 때문임.

○ 급여수준

- 노령연금을 1일 600g의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2%로 가장 높음.
- 이들은 통상 '국가공로자연금' 대상자로 과거 화폐개혁 이전 기준으로 '600에 60'대 상임.

- 300g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다음으로 높음.
- 이들은 공로가 없거나 부족한 일반 공급 대상자들임.
- 노령연금을 7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9.4%로 가장 높음.
- 1,0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다음으로 높음.
- 북한 노령연금의 소득 대체율이 통상 60% 미만인 것을 감안하면 공식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 혹은 화폐개혁 이전 수준의 답변, 또는 기타 일시적 보조금으로 인식한 답변이라 판단됨.
- 노령연금의 정상지급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50%로 가장 높음.
-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13.6%
- 여타 조사와 다소 상이한 응답으로 지급되나 노후보장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그러나 위의 응답이 사실일 경우 이는 매우 심각함)

○ 대상별 적용도

- 노령연금이 노동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2.3%
- 노령연금이 사무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22.0%
- 노령연금이 협동농장원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9.7%
- 노령연금이 당간부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1.7%
- 노령연금이 핵심권력기관을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4.1%
- 노령연금이 공로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7%
- 상대적으로 북한의 일반 노동자, 사무원, 협동농장원보다 당 간부와 국가공로자에 대한 우선 지급하는 추세는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음.

6. 공로자연금

○ 인지도

- 공훈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5.9%, 2017년 11.4%
- 북한은 국가 사회적 공훈에 따른 보상으로 승급형식의 공적연금체계임.
- 이러한 제도하에 공로자연금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것은 공로자연금 또한 노후 보장수준이 매우 낮아 이에 대한 기대수준이 낮기 때문이라 판단됨.

- 다른 한편으로 이 정도 수준의 답변은 다소 아이러니함(예측과 해석상의 한계)

○ 급여 수준

- 공훈연금을 600g의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높음.
- 이는 과거와 동일한 식량 배급수준이라 신뢰도가 높은 답변이고 사실임.
- 공훈연금을 2,0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4%로 가장 높음.
- 이는 북한의 일반 근로자의 공식적인 수입이 2-3000원임을 감안하면 다소 낮은 수준임(공로자연금의 최고수준의 소득대체율은 최종급여의 약 90-100% 수준)

7. 폐질연금

○ 인지도

- 폐질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에 0.7%, 2017년에 0.0%
- 법률적으로 정식명칭은 ‘폐질연휴금’이나 흔히 사회적 용어로 ‘폐질연금’으로 쓰임
- 산재보상 성격인 동 연금의 인지여부가 낮은 것은 다소 의아함(질문지에는 큰 문제가 없음)
- 현재까지 북한이 공식적으로 폐질연금을 폐지한 것이 아님에 따라 전년도와 달리 응답이 0(Zero)인 것은 추가적인 조사 필요함.

○ 급여수준

- 폐질연금을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음
- 폐질연금은 현금 급여임에 따라 위 응답은 사실임
- 폐질연금을 1,2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7%
- 극소수의 답변이나 의미 있고 폐질연금의 급여수준을 반증함.
- 이는 국가사회보험의 연금, 국가사회보장의 보조금을 의미한다고 판단됨.
- 단, 향후에는 지급기간을 추가적으로 질문해야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함.
- 폐질연금의 정상지급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의 응답비율이 64.1%로 가장 높음
- ‘매우 그렇다’와 ‘그런 편이다’의 응답비율은 3.1%
- 전반적으로 이는 북한의 사회복지에 대한 현실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라 판단됨.

○ 대상별 적용도

- 폐질연금이 근무중부상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10.3%
- 폐질연금이 신체적질병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4.0%
- 폐질연금이 근무중사망자를 대상으로 ‘지급’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9.5%
- 정상적인 폐질연금 수급대상이나 근무 중 사망자, 즉, 업무 중 사망은 유족연금 혹은 유가족연금에 해당됨
- 그러나 응답자의 분포가 낮은 것은 문제가 있고 특히 모름이 70%인 것은 매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함

8. 노동능력상실연금

○ 급여 수준

-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016년 0.7%, 2017년 0.0%
- 노동능력상실연금을 식량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는 없음(현금급여 중심 제도)
- 노동능력상실연금을 500원의 돈으로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0.7%
- 폐질연금과 연이어 묻는 응답으로 폐질연금과 비슷한 응답 추세
- 단, 500원의 현금 급여는 최근 북한의 장애인 보조금 수준과 비슷하여 의미 있음.